

vol. **34**

기업과 문화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GYEONGNAM  
MECE  
N A T**





Cover story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탈을 쓰고 노래하는 '가면극'인 탈춤은 부조리한 사회문제나 도덕적 모순과 같은 어려운 주제를 해학과 풍자로 풀어낸 조선 후기 대표적 민중예술이다. 고성오광대를 비롯한 전국 무형유산 18종으로 구성된 '한국의 탈춤'은 2022년 12월 유네스코 (UNESCO)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발행인 최홍영  
발행일 2023. 1. 3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055. 285. 5611

편집인 석수근  
진행 손수나  
기획·디자인 디자인바오

# GYEONGNAM MECE N A 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_\_\_\_\_ vol. **34**

## Contents

메세나 칼럼	04	기업의 업과 예술의 만남이 주는 ESG경영의 가능성, 그리고 매개자의 역할
스페셜 테마	0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한국의 탈춤, 세계의 것이 되다
아름다운 동행	12	소리로 그리는 그림, 시 낭송은 힐링 - 푸주옥 X 한국명시낭송가협회
	16	音樂因緣(음악인연), 모두의 추억이 될 음악을 위해 - 창원당당한방병원 X 마산음악협회
메세나 인터뷰	20	나눔의 순환을 실천하는 강철의 여인 - (주)도원리사이클링 대표, 김경희
	24	이탈리아가 반한 매력 보이스 형크 테너 - 가야오페라단 대표, 박종수
포토포엠	28	황금 히말 by 김민호 작가
문화공간	30	새롭게, 배양장스럽게, 통영 카페 배양장
	32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제 아그네스파크
메세나 소식	34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36	2022 경남메세나대회
	42	NH 아트프렌즈, 공공예술 창작 프로젝트
	44	찾아가는 음악회
	4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46	전국 메세나단체 공동 세미나, 충남 메세나 활성화 포럼 개최
	47	2023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인조이 컬러	48	뒤러의 우울 예찬



# 企業

## 기업의업(業)과 예술의만남이 주는 ESG 경영의 가능성,

# 藝術

김재중 한미회계법인 연구원

**들어가며** 순수한 예술의 힘은 언뜻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그려왔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영상을 통해 무언가를 감상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현란한 춤사위에 매혹되고 그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연습하고 갈고닦은 기량과 예술적인 영감의 총합체란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한다.

영화의 예를 들어보자.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고 해외 유명 매체에 크게 기사가 나는 것을 보면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무언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멋진 연기를 보여 준 주연 배우는 당연히 집중 조명(spot light)을 받지만, 카메라 뒤편에서 바쁘게 움직였을 수많은 스태프들의 존재 또한 참으로 중요하다. 영화의 바탕이 되는 스토리, 엑스트라 배우의 연기, 음악, 조명, 배경으로 쓰이는 세트장의 한쪽 벽에 걸려 있는 그림들까지 모두 그 모태는 기초 예술이라는 사실이 그 힘을 새삼 느끼게 한다.

수많은 배우들이 자라난 곳에는 대학로의 연극판이 있었고 아직도 대학로 연극무대에서는 월 100만원의 수입은 꿈도 꾸기 어려운 형편에서 새로운 작품을 연습하고 올리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예술계를 떠받치는 탄탄한 허리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무언가를 볼 때 ‘예술적’이라고 표현한다. 김연아의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점프를 볼 때나, 손흥민의 폭풍 같은 드리블과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각도에서 나오는 골을 보면서 ‘예술적’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아름답고 멋진 무언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인데, 예술은 작품 그 자체에서 주는 느낌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또는 그 예술이 활용된 콘텐츠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공감하게 하며,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긴 힘들지만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감과 행복, 그리고 몽클한 힘을 주는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다른 이들도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기업의 지원은 메세나라는 형태로 시작되고 결실을 맺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예술단체 또는 관련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새로운 시도, 즉 기업의 업(業)이나 특장점, 이를테면 그 기업이 가진 생산품 또는 기술을 예술과 접목하여 예술 그 자체 또는 사회공헌활동, 때로는 둘이 접목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공연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단순한 협찬이나 금전적인 기부의 형태를 벗어나 공동사업 형식으로 추진하는 등 예술의 색깔만큼이나 다양한 메세나 활동이 국내에도 펼쳐지고 있다.

## 그리고 매개자의 역할

### 해외 메세나의 사례

문화예술단체나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을 추진하던 방식의 메세나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확장은 메세나의 활동을 좀 더 다채롭고 신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신 기술을 예술과 접목하는 활동, 문화접근성을 높이거나 예술을 자신들의 업(業)과 연결시켜 진행하는 메세나 활동은 다양한 수준과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sup>1)</sup>

#### (1) IT 기업의 메세나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섬 입체지도와 고대 올림피아 복원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인 주요 변화는 디지털·비대면 기반 활동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예술도 2020년 이전까지 대면활동이 중심이 되었던 분야였으나 온라인·비대면을 통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문화예술 유통·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 for Cultural Heritage' ©unlocked.microsoft.com

이러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문화예술의 창작, 제작, 유통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 AR (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등의 실감형 기술이나 메타버스,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와 같이 문화예술의 중심적 영역이라고 보기 힘들었던 기술이 생산, 소비의 영역에서 담론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sup>2)</sup>

대표적인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AI for Cultural Heritage'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여 복원하고 관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의 몽 생 미셸(Mont-Saint-Michel) 섬의 입체지도를 디지털로 복원한 사례가 그것이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흔히 보는 미니어처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볼 수 있는 부조 형태의 입체지도는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고된 작업의 산물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들이 가진 홀로 렌즈(Holo-Lens Experience) 기술을 동원하여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전문가 집단인 아이코넴(Iconem)과 함께 섬 곳곳을 촬영하여 렌더링 후 3차원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성공하였다. 직접 가아만 볼 수 있었던 입체지도를 첨단기술로 디지털화하여 디바이스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기술이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유산을 경험하는데 공간을 초월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그리스 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제우스와 헤라의 신전 등 직접 가보거나 그림으로만 봐 왔던 고대 올림피아를 온라인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여 복원하거나 사라져가는 언어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번역기를 활용하기도 하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뉴욕)과 함께 AI 기술을 통해 오픈 액세스(open access) 플랫폼을 구현하여 미술관의 고정된 작품 감상을 뛰어넘어 사람과 예술을 이어주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 (2) 문화접근성에 깊이를 더하는 메세나 - 엡손(Epson)의 스마트 안경(smart glass)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장애인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의미인데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메세나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은 이동 자체도 쉽지 않거나와 예술이 펼쳐지는 공간에 간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필요와 함께 당위도 있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메세나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가 프린터 회사로 알고 있는 엡손(Epson)은 청각장애인들이 극장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 안경(smart glass)을 개발하였는데, 자막만 보는 형식이 아니라 소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각 장애로 극장 관람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연 대사를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공연에 맞춰 자막이 조정되는 형식으로 대사 스피치와 동시에 자막이 구현되어 영국에서 시범 도입되었을 때 장애인 관객의 호평을 이끌어내었다.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으로 장애인이 문화 경험의 폭 확장에 기여하는 엡손의 메세나 활동은 문화접근성의 깊이와 이해를 높이는데 메세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3) 예술을 위한 예술지원 그 잡채 - DHL과 아마존(Amazon)의 업(業)과 연결된 메세나

새로운 예술, 특이한 예술을 후원하는 메세나는 그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 나이가 새로운 예술의 척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특히 세상에 나와 예술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신진예술가들에게 메세나는 더없는 친구이자 힘이 되고 있다. 물류 기업으로 잘 알려진 DHL은 유니버설 뮤직그룹(UMG)와 함께 신진 음악가를 지원하는데 비틀즈가 작업했던 애비로드 스튜디오(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비틀즈 멤버들을 떠올려 보시라)에서 녹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메세나 활동을 통해 예술가와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등 자신들의 업(業)이자 상징성인 '배송'의 이미지를 예술가 지원 과정에 녹여낸 점은 예술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업이 생각해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가 대부분인 예술은 다른 분야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온라인 커머스의 공룡인 아마존(Amazon)은 코로나19로 인해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린 예술가를 대상으로 비디오 또는 오디오 콘텐츠 개발, 마케팅 지원, 트위터 채널 지원, 아마존뮤직 내 재생 목록 추가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금은 유명해진 아티스트들을 발굴해 내기도 하였다. 아마존의 사례 역시 어찌 보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음악 사업에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투입하고 이들에게 유입되는 팬층 역시 아마존 뮤직의 고객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기업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업(業)을 메세나와 자연스럽게 연결함으로써 예술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얻고 새롭게 확장하려는 사업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고유 사업과 예술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시사점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ESG와 메세나의 새로운 도전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한다.<sup>3)</sup>

무언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요즘이지만 ESG는 단어 자체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의 ESG 요소가 수익과 기업의 가치, 경제적인 성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ESG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관계자(투자자, 정부, 일반 국민)의 관심이 앞으로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재무적 기업활동 요소에 대한 공시는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탄소중립 기본법 등 관련 법률도 제정되는 등 구체적인 모습을 비교적 빨리 드러내고 있다.

미국에는 <Americans for the Arts>라는, 예술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단체가 있다. 그들은 매년 발표하는 '예술을 지원해야 할 10가지 이유'로도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엡손이 개발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무대를 보면 렌즈 하단에 자막이 나타난다. ©nationaltheatre.org.uk

'예술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가져야 할 8가지 이유'도 내놓았다. 기업의 창의성에 도움을 준다든가, 인지도가 높아진다는가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바로 "지역 예술과 제휴하는 것은 도시 전체와 경제적으로 제휴하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다. 실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이 느끼는 효과는 '지역 사회의 삶의 질 개선'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sup>4)</sup>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으로서의 기업은 ESG 중 'S'(social)가 의미하는 다양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술과의 만남과 협업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한국인이 기부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관심이 없거나<sup>5)</sup> 모금하는 쪽(단체)을 믿지 못해서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까지 턱없이 낮은 인지도와 공감대 형성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메세나협회나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심있는 지역문화재단과 같은 매개자(mediator)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과 문화예술계는 어찌 보면 쓰는 언어도 다르고 지향하는 방향도 같지 않을 수 있다. 열악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기부(후원)를 생각할 때 다른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두 주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하고 서로의 정보를 소개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은 ESG 경영이 중요해질수록, 그에 따라 기업이 문화예술에 더 관심을 가질수록 막중함을 더해갈 것이라 확신한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2020년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2차 지역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새롭게 발표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문화 재단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유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지역문화재단의 매개 역할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민간영역의 기부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반가운 일이었으나 그 이후 후속 진행은 더더 보인다. 결국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메세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과감한 혜택이 지금보다 좀더 과감하게 시행되어 공공지원의 영역이 민간부문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정책이 디자인되는 것이 필요하다.

"색채는 건반이고, 눈은 망치다. 영혼은 많은 줄을 가진 피아노다. 예술가란 그 건반을 이것저것 두들겨 목적에 부합시켜 사람들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사람이다." 추상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칸딘스키가 한 말이라고 한다. 더 많은 기업의 메세나가 지역 문화예술계와 함께 그런 감동적인 진동을 일으키기를 소망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한국의 탈춤

## 황종욱

(사)한국탈춤단체총연합회 부회장

20대 초반부터 문화예술 분야와 인연을 맺고 30여년을 축제, 공연판, 전통예술 전승, 엑스포 등 문화 분야에 종사했다. 추계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대학원에서 예술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사)한국탈춤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맡아 대한민국 탈춤제를 기획했다. 현재는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 사무국장, (사)고성오광대보존회부회장, (사)한국탈춤단체총연합회부회장을 맡아 지방이 아닌 지역이라는 철학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오방색을 입은 양반들이 한바탕 춤을 추며 놀다가 말뚝이라는 하인을 불러 희롱하는데 오히려 양반들이 놀림을 당한다. 고성오광대 2과장 오광대놀이의 한 장면이다.

2022년 12월 1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탈춤”이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 목록에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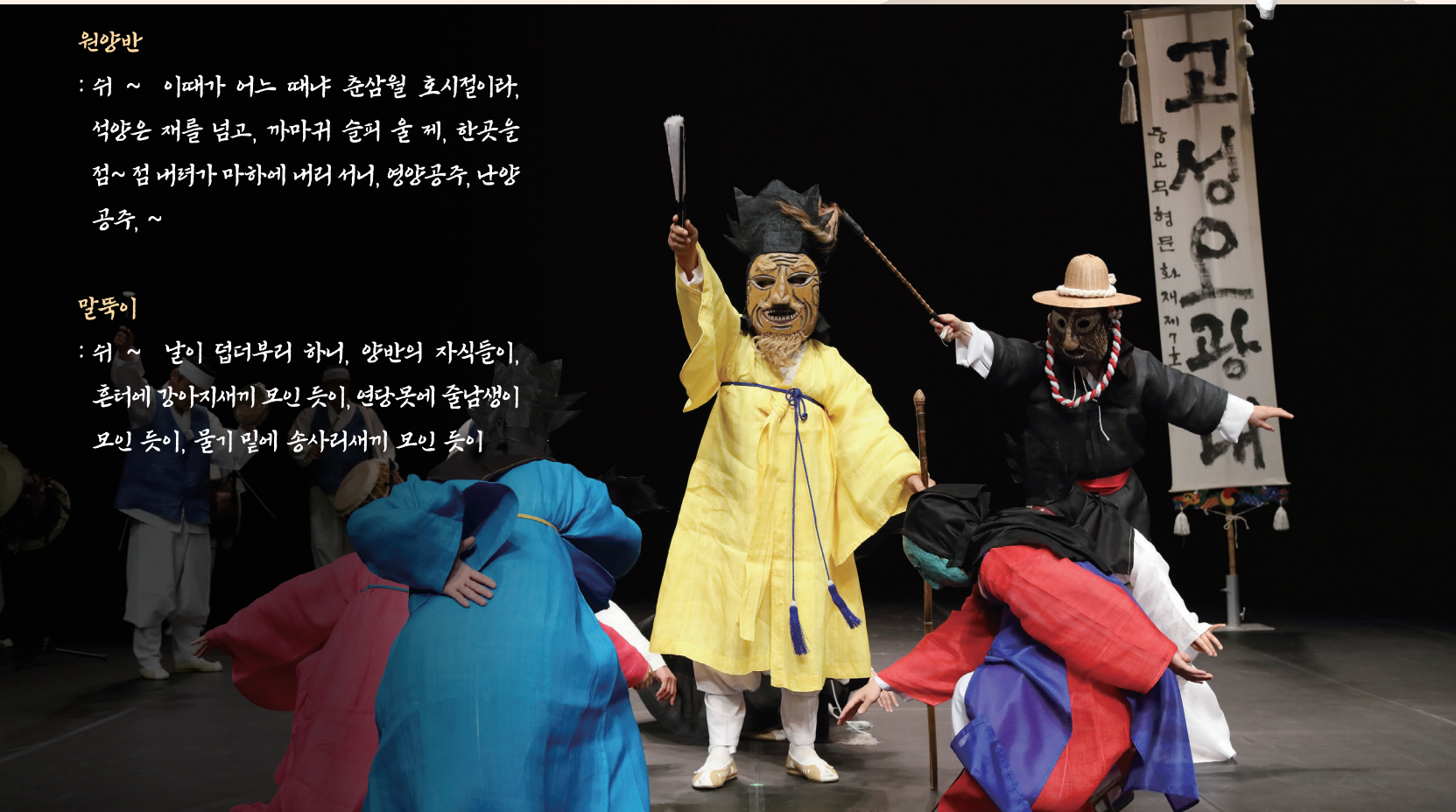
1

## 원앙반

: 쉬 ~ 이따가 어느 때냐 춘삼월 호시절이라, 석양은 재를 넘고, 까마귀 슬피 울 제, 한곳을 접~접 내려가 마하에 버리 서너, 병양공주, 난양공주, ~

## 말뚝이

: 쉬 ~ 날이 덥더부리 하니, 양반의 자식들이, 혼터에 강아지새끼 모인 듯이, 연당못에 출남생이 모인 듯이, 물기 밑에 송사리새끼 모인 듯이



# 세계의 것이 되다

무형문화유산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환경, 역사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유산

무형문화유산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환경, 역사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유산으로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시대 흐름에 따라 새로운 것이 생성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며 단절되기도 한다. 유네스코는 이런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이나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현,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축제, 전통 공예 기술 등이다.

탈춤은 탈을 쓰고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재담(대사)도 하는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의 전통예술로써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

이번에 등재된 탈춤은 탈을 쓰고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재담(대사)도 하는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이다. ‘탈춤’이라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탈춤은 음악 반주에 맞춰 춤추면서 노래하는 가무(歌舞)의 성격이 강하다. 동시에 등장인물이 서로 주고받는 말과

동작을 통해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며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극이라 말할 수도 있다. 이 탈춤은 전승되어 오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운다.

먼저 황해도(해서탈춤) 전역에서 놀아졌으나 지금은 봉산(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강령(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은율(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등 세 곳만이 전승되는데 이를 탈춤이라고 한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에서 전승되는 탈놀이를 산대놀이라 하는데 이것은 예전에 산대(山臺)라고 하는 가설무대를 세워 놀음을 놀았던 것에서 연유된 것 같다. 지금은 산대 없이 평지에서 공연하나 산대놀이라 불리며 송파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와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2호)가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왕조시대에는 한양에서 경상도 지역의 지도를 바라보면 낙동강 좌측 지역을 경상좌도(현재 부산)로 불렀고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탈놀이를 야류(野遊)라 한다. 야류는 “들놀음”이라는 말의 한자 표기이고 산에서 놀거나 집 안에서 노는 놀음과 달리 “들”에서 논다는 뜻으로 쓰였다. 이 역시 가면극이며 부산의 동래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와 수영에서 전승되는 수영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가 있다.

마지막으로 왕조시대에 경상도 지역의 지도를 바라보면 낙동강 우측 지역을 경상우도(현재 경남)라 했는데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탈놀이를 오광대라 한다. 현재 고성

1. 고성오광대 2과장 오광대놀이
2. 은율탈춤
3. 북청사자놀음



2



3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통영(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가산(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경남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외에도 탈춤·산대놀이·야류·오광대, 이런 명칭과는 달리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



4

무형문화재 제69호)와, 강릉관노가면극(국가무형문화재 13호),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15호)등의 가면극도 전승되고 있다.

이번 등재에는 13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외에도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5개단체 퇴계원산대놀이, 예천청단놀음, 진주오광대, 김해오광대, 속초사자놀이까지 18개 탈춤이 등재된다. 탈춤이라는 같은 대상을 두고 여러 명칭이 공존한다는 것은, 탈춤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연행되었던 오랜 역사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탈춤의 주요 내용은 종교인의 관념적 허위와 이중성, 상층계급의 오만함과 무지, 남성 우위 사회의 모순과 서민 생활의 애환 등을 유쾌하게 표현된다.**

탈춤의 주요 내용은 사회의 여러 부조리한 대상과 이슈들이다. 종교인의 관념적 허위와 이중성, 상층계급의 오만함과 무지, 남성 우위 사회의 모순과 서민 생활의 애환 등이 춤, 노래, 대사를 통해 유쾌하게 표현된다. 한국의 탈춤에서는 적대적인 인물들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언제나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탈춤은 갈등을 목적으로 한 공연이 아니라, 화해와 조화를 위한 무형유산이라 할 수 있다. 지적할 것을 지적하면서도 크게 하나가 됨을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공동체 유산이 한국의 탈춤이다.

각 지역의 탈춤은 다양하지만 공통으로 존재하는 과장이 있다. 양반과장, 중과장, 영감·할미과장이 그것이다.

이들 과장에서는 양반의 허위적 비판, 타락한 중의 비판, 처첩 갈등에 대한 해학 등이 담겨 있다. 즉, 이 탈춤이 형성될 시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문제시하는, 이른바 ‘공공의 적’들을 유쾌하고 신명 나게 예술로 공론화한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민주주의의 한 사례가 된다. 이들 과장에서는 적대적인 인물들 간의 말싸움이 진행되지만, 결국 그 끝에는 서로 함께 화해의 춤으로써 마무리되고 있다. 그래서 탈춤은 ‘갈등’을 목적으로 한 예술이 아니라, ‘화해’와 ‘조화’를 위한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유네스코 정신인 ‘공동체간 상호 존중’과 상통한다. 탈춤 공연에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다. 공동체가 살아가는 너른 야외 마당이 탈춤의 무대다. 탈춤 공연을 보는 이들은 또 하나의 연희자들이다. 그들은 관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탈춤에서 비판하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응원한다. 적대적인 캐릭터에게 야유하는 예도 흔하다. 연희자들의 연행과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지는 공연이다.

**탈춤의 대사는 그 지역의 언어로 되어 있고, 지역 민요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탈춤은 그 지역 문화의 축소판이자, 문화 아이콘이다.**

탈춤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래서 보존회의 명칭마다 그 지역의 이름이 병기되어 있다. 이미 해당 지역에서 그 탈춤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탈춤의 대사는 그 지역의 언어로 되어 있고, 그 지역에만 전승되는 민요가 들어가 있다. 캐릭터의 성격 또한 그 지역 사람들의 특색을 담고 있다. 그런 만큼 탈춤은 그 지역 사람과 문화의 축소판이자, 문화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전승되는 오광대 즉 탈놀이는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 각 지역에 대한 자부

- 4. 고성오광대 4과장 승무과장
- 5. 2022 여름탈놀이배움터 기본춤 전수
- 6. 고성오광대 기본춤



5



6



심이자 정체성(identity)을 심어주는 문화 아이콘인 것이다. 이 문화의 아이콘을 이제 다 같이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관심이 필요하다.

경남에서 전승되는 오광대라는 이름의 탈춤의 뜻은 다섯 마당(5과장)으로 놀아지기 때문이라는 말과 다섯 명의 광대가 나와서 노는 놀음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이 가운데 다섯 과장으로 구성된 것은 고성의 경우이고 다른 지역은 일곱 과장, 여섯 과장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어 경남 일대의 모든 탈춤의 이름으로 설명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섯 명의 광대가 나와서 공연함에서 연유된 것, 특히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방위(오방)를 상징하는 다섯 광대가 나와서 하는 놀이가 주가 되었기에 이것을 근간으로 오광대라는 명칭으로 두루 쓰이게 된 것 같다.

지금까지 경남에서 전승되는 탈춤 즉 오광대는 국가무형문화재 3개(고성오광대, 통영오광대, 가산오광대), 도무형문화재 2개(진주오광대, 김해오광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보존단체의 문화 예술행정은 공연, 전수 사업 등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비중을 두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이 무형문화재 가치를 전달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필요하고 그 계기가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좋겠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 올바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들도 필요하다.**

지역에서 전승되는 탈춤의 진흥, 발전의 축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있다. 국가의 문화재청, 그 산하 기구, 지방정부 또한 이제 더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탈춤은 전승자들의 사명감과 희생, 거기에 덧붙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 전승되는 탈춤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들도 필요하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전승되는 대다수 탈춤 단체들이 겪는 고충은 전승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농업이 주 산업이라 본인이 시간을 할애하고 참여하기가 쉬운 환경 즉 자영업이 위주였고 이렇게 참여가 쉬운 분들이 연희자들이었다. 현재는 어떤가? 일반적인 직장을 가지고 공연에 참여하고 예술적인 역량을 배우고 익히기에는 쉬운 환경이 아니다. 나아가 탈춤 공연만으로 생계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각 보존회는 젊은 전승자 확보에 비상히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전승자들의 자기 희생과 노력에 기댈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속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 지역 사람과 문화의 축소판, 문화 아이콘인 “오광대”를 지켜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나는 오늘도 고성오광대 전수관으로 간다  
산 좋고 물 좋고 열쑥 좋다. 청노새--- 청노새**

나는 오늘도 고성오광대 전수관으로 간다.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개최하는 고성오광대 겨울 탈놀이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 캠프에는 전국에서 대학생, 청소년, 무용가, 전문 연희자 등이 참여하여 그야말로 춤의 고을 고성을 만든다. 이 춤고을 고성오광대가 고성에서 온전히 뿌리내려 나의 스승님들이 지켜왔듯이 나의 후배들과 제자들이 고성오광대를 고성에서 올곧게 지켜가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힘차게 불림을 읊조린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오광대를 위하여,  
“청노새--- 청노새”





✓  
 푸주옥  
 대표 이석희 / 강혜정

✓  
 한국명시낭송가협회  
 신승희 시인

# 소리로 그리는 그림,

# 시 낭송은 힐링

푸주옥

## × 한국명시낭송가협회

### 시 낭송이 맺어준 사이

바쁜 점심 식사 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으니 분주함이 미처 가시기도 전이었을 것이다. 창원의 맛집으로 소문난 푸주옥의 대표 이석희씨와 아내 강혜정씨, 그리고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명시낭송가협회 신승희 시인... 이렇게 세 사람이 마주앉았다. 단 하나, '시 낭송'이 좋아 만난 사이이다. 이석희 대표와 신승희 시인이 창원대 아카데미에서 처음 만난 게 14~5년 전, 신승희 시인이 시 낭송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석희 대표는 단박에 마음이 움직였다. 시 낭송이란 걸 전문적으로 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좋아 보였다. "전문 시 낭송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도 있고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니까 제가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어요." 신승희 시인은 시 낭송을 좋아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 시 낭송에 반한 푸주옥

이석희 대표는 '시 낭송'이 왜, 어째서 좋았던 걸까? "책 한 권 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뭐랄까 정말 좋은 부분, 핵심만 함축시켜 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슴에 와닿았죠." 푸주옥의 안주인 강혜정 대표는 당시 낭송으로 들었던 시가 당시 남편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그때 당시 가족관계가 좀 어려워졌어요.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시다가 치매가 오고 병원에 모셨는데, 그러면서 가족이 헤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그 당시 심정이 시 낭송을 듣고 눈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이석희 대표를 울린 시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이다. 요양원에 봉사하러 가셔도 이 시를 낭송했는데, 청중들을 많이 울렸다고....

시 한 편을 읽은 날은 '시심(詩心)'으로 하루를 견딜 수 있다. 어느 무명인의 이 글귀가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다. 더군다나 누군가 나의 감정을 그대로 담은 듯이 읊어준다면 그 여운은 우리 영원의 위로로 남을 지도 모르겠다. 시 낭송의 세계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동행을 따라가 본다.



푸주옥의 나눔 철학에 관한 시인

그렇게 시 낭송에 관한 이석희 대표는 신승희 시인이 시 낭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함께 봉사도 다니고 함께 시 낭송 콘서트를 만들어가면서 활동을 돕고 있다. 그 자신도 실력을 갈고 닦아서 무대에 함께 서기도 했다.

신승희 시인은 “부창부수예요. 남편 되시는 이석희 대표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만약에 아내가 그걸 틀어버리거나 반대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조해주고 공감해주시면서 함께 도와주시니까 이게 되는 거죠. 두 분 다 대단하지만 아내 되는 강혜정 대표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라고 두 내외의 ‘시 낭송’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 감사하다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신승희 선생님이 정말 시 낭송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입니다. 서울에서도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접 시도 많이 쓰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시 낭송을 위한 전부를 다 갖춘 분입니다.”라는 푸주옥 강혜정 대표는 신승희 선생의 시 낭송에 반했다. 서로 간의 믿음이 돈독한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팬이다.

강혜정 대표는 푸주옥 일이 거의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시 낭송을 연습하고 실력을 갈고 닦을 시간이 부족해 안타깝다고... 언젠가는 꼭 한번 무대에 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시 낭송 콘서트

한 편의 시를 낭송하는 것은 그걸 듣고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가슴에 와 닿아야 감동으로 전해지는 거라고. “소리로 스케치하는 거죠. 소리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녹여낼 줄 알아야 시인한테 미안하지도 않죠.”라는 신승희 시인. 어느 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시 낭송이라는 걸 처음 듣고는 전국을 수소문해서 서울까지 갔지만 전문적으로 배울 곳은 없었다. 결국 독학으로 책을 읽고 터득하게 된 거라고. 전문 시 낭송가로는 전국 최고이고 지금도 전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시 낭송가로 시작해서 시인으로 등단도 했다. “성산아트홀 같은 공연장에서

시 낭송 콘서트를 하는 걸 보고 서울에서도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유일해요.”라며 자부심이 대단하다. 시 낭송 협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푸주옥의 꾸준한 지원과 도움 때문이라고. “푸주옥 내외분을 만나기 전에는 자력으로 운영했는데 콘서트 같은 건 꿈도 못 꿴죠. 또 낭송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마련해주셨어요. 이제는 이렇게 메세나까지 만나서 더없이 좋죠.” 꾸준히 10여년 함께했던 푸주옥과 한국시낭송가협회는 2019년부터는 경남 메세나의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더 다양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다.

문화와 나눔에 진심인 푸주옥

푸주옥의 이석희 강혜정 대표는 문화 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시 낭송 협회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콰이강의 다리가 있는 마산 가포에 ‘쇼나’라는 특별한 갤러리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푸주옥 맞은 편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마련해 2023년 초

에 오픈할 계획이다. 문화 예술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도 전혀 아낌이 없다. 창원대학교에 기증한 금액만 8천만 원, 남몰래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에 매달 돈을 부치기도 한다. 강혜정 대표는 “돈 벌어서 금고에 넣어봐야 돈이 아니죠.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그게 행복이죠.”라며 미소지었다.

이석희 강혜정 내외는 아직도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가게로 나와 도가니를 직접 삶는다. 부부의 오랜 습관이다. 30년 전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을

66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시 낭송을 위한 전부를 다 갖춘 분입니다.



때 ‘빛만 없으면... 따뜻한 방 한 칸만 있으면 참 좋겠다’ 했던 시절이 있었다. 삼랑진 강에 빠져 죽으려고도 했다. 15년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살았다. 하루종일 일하고 들어와서도 저녁에 집에 들어와 따뜻한 방에 등을 대고 누우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 행복감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다. 부끄럽지 않은 30년이였다. 그 힘든 세월을 이기고 지금은 기업 수준으로 식당을 키운 부부는, 지역에 많은 것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다.

전생에 형제였을지도... 서로에게 힐링

지금 이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일까? 신승희 시인은 “참 필요한 인연입니다. 전생에 아마도 푸주옥 내외 분들하고 제가 형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믿어주고 좋아해 주고 후원해 주니까... 저는 아들한테도

창원 푸주옥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풀 줄 알고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요.”라고 말한다. 푸주옥의 이석희 강혜정 부부에게 ‘시 낭송’은 어떤 존재일까, 이석희 대표는 “힐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힐링이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시 낭송이 그런 존재이고, 시 낭송 협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낭송가들이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문화예술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아주 힘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걸 시 낭송을 접하고 배우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한다. 강혜정 대표는, “오아시스 같은 거죠. 이슬을 뿌려주는... 삭막한 인생에 산소 같은 아름다운 존재?”라며 소녀처럼 해맑은 미소를 전한다.

앞으로 시낭송가협회 신승희 시인과 정기적으로 요양 병원을 방문해 시를 낭송하는 새로운 일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화사업 쪽으로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푸주옥, 느리지만 조금씩 문화예술로 창원시민과 더 공유하고 싶다.

66

동조해주고 공감해주면서 함께 도와주니까 이게 되는 거죠.

공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그게 행복이죠.





# 音樂因緣

## 모두의 추억이 될 음악을 위해...

음악을 사랑한 남만닥터

### 창원당당한방병원 × 마산음악협회

지역을 사랑한 음악의 파수꾼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산음악협회가 2022년에는 아주 특별한 연주회를 사흘간 펼쳤다. 제1회 마산음악 페스티벌. 연주자 중심의 기존 발표회와는 달리 시민 관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간 음악축제였다. 마산음악협회가 사흘간의 음악 페스티벌을 열 수 있었던 건 매칭 파트너 창원당당한방병원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 창원당당한방병원과 마산음악협회의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를 들어봤다.



✓ 창원당당한방병원 김병진 원장

✓ 마산음악협회 주상민 회장

흔히 지상 최고의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라고들 말한다. 꼭 노래 솜씨가 좋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추억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명약이 있을까 싶다.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음악의 힘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한다면 이보다 멋진 동행이 있을까. 창원당당한방병원 김병진 원장과 한국음악협회 마산지부(이하 마산음협) 주상민 회장의 만남에는 그런 공감이 있었다.

창원당당한방병원은 경남 최초로 체형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김병진 원장은 한의사로서 약 20년간 체형 통증과 난치 증상을 치료해왔다. 주상민 지휘자가 회장을 맡고 있는 마산음협은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최고의 음악인 단체로 전국 음악 콩쿨대회, 신인음악회, 늘푸른 음악회 등 지역의 음악발전을 위해 오래도록 활동하고 있다.



언뜻 보면 연결 고리가 없어 보이는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의 끈이 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김대욱 테너이다.



1

**김병진** 직전 회장을 맡았던 김대욱 테너가 절친입니다. 경상고등학교 시절에 음악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김대욱 테너에게 노래를 청하셨는데 이은상 선생의 '가고파'를 불렀어요. 가곡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그때 처음 느꼈죠.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친구이지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 친구를 통해서 마산음협을 알게 됐고 인연을 맺게 됐죠.

**주상민** 제가 마산음협 맡은 지 3년째예요, 전임 회장님이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시죠. 든든합니다. 음협은 따로 지원받는 게 거의 없어요. 무조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기업체나 이런 후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대욱 테너를 인연 삼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왔던 김병진 원장은, 3년째 메세나 매칭 펀드를 통해 보다 깊은 파트너십을 맺어오고 있다. 마산음협에서는 창원당당한방병원과의 매칭 펀드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마산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주상민** 사실 지금까지의 마산음협의 예산 규모로는 기획조차 할 수 없는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참석했고, 마산음협에 소속돼 있는 다양한 연주자들의 기량을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김병진** 사흘 동안의 페스티벌을 치러내는 걸 보고, 마산음협이 다양한 장르로 풍부하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감회가 남달랐죠. 하루에 그쳤던 연주회가 다양하게 펼쳐지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무대가 더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김병진 원장에게 음악은 향수이자 추억이었다. 특히 대학 시절에 아지트처럼 들락이던 음악감상실에 대한 기억은 특별했다.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하루종일 음악을 듣고 밤이면 막걸리 파티를 했던 그 시절... 지글거리던 LP 판의 소리, 늘 그림을 그리던 음악감상실 주인장의 모습까지... 그곳에서 들던 음악을 듣게 되면 그 시절의 모습이 영화 필름처럼 차르르~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 달 생활비를 쪼개서 음반도 사고 전축도 샀다. 할부금을 갚느

1. 좌) 김병진 원장  
우) 주상민 회장
2. 마산음악협회 공연모습
3. 창원당당한방병원 대기실

음악다방처럼  
즐겁게  
청취할 수 있는  
연주회가 많이  
생겼으면...

라 상당히 애먹었지만, 그의 자취방은 당시 많은 선배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음악감상실이었다. 그런 추억이 음악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병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장인 화가 선생님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려달라, 시내에 나가서 팔겠다, 결국 10장도 못 팔았는데, 그 엽서를 가지고 나갈 때 박인수의 '떠나는 배'가 흘러 나왔어요.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고... 노래 들으면 찡하고... 그렇게 낭만이 있었던 때죠. 그 시절 음악다방처럼 즐거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청취할 수 있는 연주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상민** 작은 규모의 음악회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가 자주 열릴 수 있도록 하면 클래식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요. 대중음악하는 뮤지션들이 하는 것처럼 '클래식 버스킹'을 기획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상민 회장의 기획력 또한 남다르다. 나이 많은 선배 음악가부터 후배들까지, 거기에 관현악, 작곡, 피아노 등등 전공들도 다 다른 예술가들이 모인 단체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 않을 터... 부담감 또한 굉장히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간 연령대로 음협의 허리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크다.

**주상민**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음악을 공유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음협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젊은 회원이 원하는 것, 전통을 지키려는 선배님들이 원하는 것... 여기에 새로운 것 매칭 잘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소통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템도 나오고요.



2

**김병진** 겨울에 몇몇 '송년 음악회'에 참석하게 되면 마음이 참 짠해요. 결국은 재정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정 하나만으로 모여서 또 저렇게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걸 다 아니까... 정말 필요한 건 어느 정도 약간 시작할 수 있게 꿈 돕는 거,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꿈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또 진정한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절친 김대욱 테너와 약속한 작은 음악 연습공간을 언젠가는 병원 한쪽에 만들겠다는 김병진 원장,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보다 대중과 가까운 공연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겠다는 주상민 회장... 김대욱 테너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대화는, 1시간여 함께 마주 보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주상민** 1회라는 건 숫자 2가 있고, 2회, 3회 계속 있다는 거거든요. 발전된 모습으로 모범적인 페스티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한때 음악은 제게 절대적이었고 지금은 추억으로 남았죠. 40년이 넘었지만 음악이 흐르면 그때 음악을 매개로 만난 친구들이 또렷이 생각나요. 그 시절 음악이 나에게 힘이 됐던 존재거든요.

이 시대의 많은 음악가들은 또 누군가의 추억과 낭만과 향수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추억은 힘이 세다. 한때의 낭만이었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는 이와 그런 추억을 만들어가는 이의 아름다운 동행이 꼭 이어지길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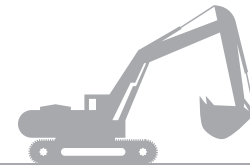


# 나눔의 순환을 실천하는 강철의 여인

김경희

☞도원리사이클링 대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고철 스크랩 시장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도원리사이클링 김경희 대표가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 인연을 맺었다. 더불어 경남영화협회의 활동을 적극 후원할 계획이 이미 그녀의 머릿속을 거쳐 손끝에서 착착착 시작되고 있다. 맨손으로 자수성가하며 2022 자랑스런 한국인대상에서 자원순환기업대상을 수상한 김경희 대표를 만났다.



입구에 세워진 지게차, 쌓여 있는 각종 고철들과 그 사이를 분주히 움직이는 굴착기... 함안군 칠원읍에 자리한 도원리사이클링은 흔히 고철상이라 불리는 고철 스크랩 전문 기업이다. 한편에 마련된 컨테이너 건물이 김경희 대표의 사무실이다. 자그마한 체구에 연보랏빛으로 염색한 세련된 단발머리가 아주 인상적이다. 980조 원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자원순환기업, 연 매출 300억 원의 탄탄한 기업. 스크랩계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김경희 대표... 그녀가 내뿜는 에너지가 도원리사이클링이 그냥 고철상이 아님을 말해준다.

## 강철의 여인, 메세나 가족이 되다

메세나와의 인연은 '갤러리 거제' 정흥연 대표를 통해서다. 여성 경제인 협회에 같이 임원으로 있으면서 친분이 두터웠다. 정흥연 대표는 경남영화협회 회장으로 해마다 경남 독립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지난 15년을 이끌어왔다. 자신과 주변 지인의 십시일반으로 겨우 꾸려온 살림,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후원은 눈에 띄게 줄었다. 오랜 지인인 김경희 사장에게 예술인을 후원하는 메세나를 소개하면서 도움을 청했고, 김 대표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실 문화예술 쪽으로 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기업도 힘든데 문화예술인은 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죠. 왜 엄마들도 힘들면 예체능 먼저 끊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뭐 먹고 사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그림, 영화, 뮤지컬이 다 취미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생계잖아요. 그러던 중에 정 대표가 얘기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입했습니다.”

## 15억 빚더미에서 300억 매출로

김경희 대표가 남달리 '생계'를 걱정하고 챙기는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13년 전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아이 셋과 컨테이너에서 살게 되었다. 빚만 15억이었다. 겨울에 물이 얼면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 세수해야 했고 그 물티슈마저 얼까 봐 안고 잤다. 아이의 수학여행비가 없어 온 집을 다 뒤지기도 했다. 그녀의 나이 서른여덟이었다. 난생처음 겪어보는 가난... 그렇지만 생각할 게 뭐 있겠는가, 늦은 밤 어린 막내를 업고 1톤 트럭을 직접 몰고는 창원 상남동으로 나가 강통을 주웠다. 그마저도 임자가 있고 구역이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누구보다 일찍 가서 가게





주인을 만나 ‘덜’을 했다. 가게 앞을 깨끗하게 싹 치워줄 테니까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엄마는 누구보다 강했다.

15억의 빛... 도서관 사서로 일하기도 하고 태권도 사범도 해봤지만, 사업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무슨 자신감인지 남편이 하던 이 고철상을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쇠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거 돈이 되겠네 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펼쳐져요. 새로운 도전도 즐겁고 뭔가를 이뤘을 때의 성취감이 좋고, 힘든데 밤에 누웠을 때 뿌듯해요.”

한국철강 구좌업체에 취직했던 적도 있었다. 아줌마를 받아줄 리 만무한데 ‘6개월 안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목표를 달성하겠다, 못하면 바로 잘라라’ 제안을 했고 정말로 그녀는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남자들 세계에 들어가니까 고철 바닥에 석달도 못 살아남는다고 자신을 두고 내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철 스크랩 시장에서 캐드로 설계해서 제품을 따고 남는 철판을 그대로 아무 말 않고 가져오면 되는데 그녀는 그걸 그냥 보아 넘어가지 않는다.

“사장님을 불러요. 이거 더 할 수 있는데 왜 고철로 나왔냐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거 바보 아니냐고 갖고 가면 돈이 될 텐데... 왜 저러냐 수군대죠.”



하지만 김경희 대표는 하나 더를 내다본다. 이 공장이 살아야 나도 산다고. 이 공장이 부도나면 나는 당장 돈을 번다 해도 내년 후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거래처 하나 날아가는 거 아니냐고, 여기가 돈 많이 벌어야 나도 안 망하는 거 아니냐고... 시기와 질투도 넘쳐났다. 여자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회장님이 있다는 별의별 소문도 수두룩했다.

“배척당하고 설움과 무시도 많이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서 13년 동안 여기까지 왔죠.”

망치, 전동드릴, 해머를 들고 일하면 장갑을 끼도 손톱이 까매진다. 한 번은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모임에 갔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까만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갔다. 그때 한 친구가

“경희야, 니 그거 도둑질 한 손 아니잖아. 열심히 일한 손이잖아. 왜 부끄

러워? 난 니가 자랑스럽다”

했던 말이 참 고마웠다고.

안목과 철학이 남다른 그녀다. 유착이나 뒷거래가 꽤 많은 고철 시장에서 제대로 실력으로 붙어보자 했다. 누구나 팔 수 있는 좋은 물건 대신 하기 싫은 거, 애매한 거, 처리하기 어려운 거부터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신뢰가 쌓였다.

“금요일, 토요일 되면 제강사 주식 흐름도 보고 가격 정보 제품 특징 싹 정리해서 직원들하고 거래처 사장님하고 공유해요. 저는 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믿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4년에 빛 15억을 모두 갚았고, 이후 3년 안에 회사 매출 300억을 달성해냈다. 아이 셋과 컨테이너를 벗어나 처음 19평 아파트에 들어간 날, 작은 케이크 하나에 불을 켜놓고 함께 부둥켜안고 울었다.

### 나누기 위해 더 일하는 CEO

돌이켜보면 어려운 시절 자신을 도와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하는 김경희 대표. 그래서 그녀는 나누는 일에 망설임이 없다. 막내가 다니는 학교와 자신의 모교, 또 창원 범숙학교에 후원하는 것은 물론 사정이 딱한 아이들이 보이면 뭐라도 해주고 싶다. 작년에 4명의 아이를 대학 보내준 데 이어서 올해는 자신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의 아이를 대학에 보낼 계획이다.

“다들 새벽부터 뭘 그렇게 바쁘게 다니냐, 돈 벌어서 다 뭐하냐 하는데, 저 대학 보낼 애만 여섯입니다... 하죠.”

머리가 복잡할 때면 야드에 나가 전선을 깬다. 그냥 처리하면 7~8천 원밖에 못 받지만 전선을 까면, 1만 2~3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돈 벌었다. 애들 피자 사줘

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못 말리는 나눔 천사이다. 나누기 위해 더 열심히 스스로를 움직이는 김경희 대표이다. CEO들의 모임에서도, 경제인들끼리의 모임에서도 거부감 들지 않게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스스로 더 솔선수범한다. 그렇게 나눔을 퍼뜨려 가고 있다.

### 지역 문화예술의 업사이클링을 위해...

부유한 어린시절을 보낸 김경희 대표는, 문화예술 쪽에 재능과 관심이 꽤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이나 글짓기 대회에서 수없이 수상도 많이 했고, 지금도 일기장에 그림을 항상 함께 그린다. 무엇보다 큰 아이가 희귀 난치성 질환인 루푸스 병을 앓고 있었던 게 큰 계기가 됐다. 햇빛을 못 보는 아이는 학교를 한 달에 한 번밖에 가지 못했다. 자연히 집에서 음악 듣고, 그림을 찾아서 보고 그리고 하는 일과가 컸다. 그래서 아마도 ‘갤러리 거제’와 인연이 닿았는지도 모르겠다. 지인들과 거제에 갈 일이 있으면 꼭 ‘갤러리 거제’에 모시고 가서 설명과 함께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후원하는 경남영화협회의 독립영화제도 직원들과 함께 단체로 관람했다.

“직원들에게도 고철만 보지 말고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보고 뮤지컬도 보라고 해요. 대표님 이거 봐도 모르겠는데요, 하면... 니 눈에 좋으면 좋다. 니 마음이 편하면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일 때문에 독립영화제에 못 갔는데 서운하다더라고요.”

강철의 여인이란 별명 외에 김경희 대표에게 붙은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 바로 ‘실행력 갑’이다. 해야겠다 하겠다 마음먹으면 바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가 경남영화협회의 독립영화제를 한번 살려보겠다 마음 먹었다. 앞으로 30년간 후원하겠다 선언을 했다. 멀리서 오는 배우들이 여관보다 못한 숙소에서 자는 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해 숙소를 지원했고,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애써 만든 작품들이 미처 관객을 만나지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을 바꿔보겠다고 나섰다. 나중에 하는 건 늦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게 그녀의 또 하나 철칙. 벌써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열악한 지역의 영화 환경을 알리고, 작게라도 내넌엔 같이 좀 홍보하고 함께 하자고 설득하고 유도하고 있다.

“회사 분위기도 올라가고 가치도 올라가고 직원 복지도 좋아진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정말 3자가 다 좋아지는 일이잖아요.”

### 리사이클링... 나눔의 순환, 행복의 순환

우리 실력으로 승부하자, 맨손으로 정면승부하고 부딪혀보자 했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도원리사이클링은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지치지 않는 그녀의 원동력은 뭘까? 뭔가를 이뤄냈을 때의 성취감이 가장 크다. 또 하나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게 전부야 아님이 분명하다.

혼자 잘 살려고 하지 않는 마음, 힘든 일이라도 도맡아 하려는 적극성, 업계 관행을 깨고 솔직하게 터놓는 믿음,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나눔의 정신... 이 모든 특별함이 도원리사이클링 김경희 대표의 성공 원인이었을 거다.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나누고 사셨어요. 또 저 힘들 때 많은 분이 도와주셨어요. 아팠던 게 지금은 무더졌고,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가 아니라 나도 도움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나누지 않겠어요?”



리사이클링, 순환이라는 이름 그대로 나눔도 순환하고 행복도 순환한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김경희 대표, 그녀가 메세나 가족으로서 지역의 예술문화계와 함께 펼쳐나갈 멋진 리사이클링도 기대가 된다.





## 이탈리아가 반한 매력 보이스

# Hunk Tenor 헝크 테너

박종수

가야오페라단 대표

이탈리아에서 양산으로, 양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김해로... 중앙은 물론 지역 무대와 세계 무대를 부지런히 오가며 노래 하는 이가 있다. 2022년 이탈리아 산레모 가요제에서 2관왕을 거머쥔 테너 박종수. 한때 성악가의 길을 포기하려 했던 그가 이토록 화려하게 무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더불어 가야오페라단 대표로 나서며 젊은 성악인들 사이에서 '셋별'로 떠오르고 있는 그를 만났다.

### 산레모 가요제 최초 동양인 우승자

2022년 2월, 이탈리아에서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다. 72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산레모 가요제 '뉴 탠런트 (신인가수)' 부문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인 우승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주인공은 테너 박종수. 정말 '죽도록 연습'하며 준비했지만 본인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동양인이 저밖에 없는지도 가서 알아봤어요. 아시아에서 한국 애가 코로나를 뚫고 여길 왔네, 아마 의아하게 봤을 거예요. 사실 잘 가면 파이널까지 가겠지 하는 마음이었지 우승에 2관왕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다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엄청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놀랐죠.”

현지의 반응은 뜨거웠다. 심사위원장 빈체 템페라가 '마치 이탈리아가 낳은 전설의 테너 베니아미노 질리의 노래를 듣는 것 같다'고 극찬한 말은 그를 가슴 뛰게 했다. 또 현지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 'Il Mare Calmo Della Sera (일 마레 칼모 델라 세라, 고요한 저녁 바다)'를 듣고 안드레아 보첼리보다 좋다는 찬사도 들었다.

“집이 코앞이었는데, 대회 끝나고 집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발짝 가면 사진 찍자, 찍고 또 가려고 하면 '잘 들었다' 말을 건네오고 또 사진 찍고, '축하한다',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뭐지? 어리둥절하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 한순간 매료된 성악

그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늦게 성악을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노래 듣는 건 좋아했지만 직접 부르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하루는 피아노를 배우러 학원을 찾아가는데 그곳 선생님이 '목소리 좋은데 노래 한번 해볼래?' 하셨다. 그래서 한 번 불렀더니 '성악 한번 해볼래?' 권하셨다. 무슨 마음이었을까, 어떤 이끌림이었을까?

그 길로 소개받은 선생님을 찾아가다. 마침 수업 중이던 선생님은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아리아를 부르고 계셨는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성악에 매료됐고, 그렇게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 '마음의 눈'



### 녹록지 않던 이탈리아 유학

부산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그는 2014년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나갈 때만 해도 4년 안에는 길이 보일 것이다, 뭔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했던 실력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노래 좀 한다 하는 이들이 모두 모이는 음악원에서 그는 자신이 한참 모자라다는 걸 느꼈다고.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지금까지 한 노력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졸업은 해라, 다시 생각해 보라 해서 겨우 졸업하게 됐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본가에서도 지원이 어려웠다. 방송 현지 코디 일을 시작했다. 피렌체로 옮겨 국제 공인 가이드 자격증 시험까지 준비하며 아예 다른 진로를 꿈꿨다. 그 시절 국수 한 묶음을 사서 며칠 나눠 먹어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러던 차에 우연히 사업차 피렌체를 방문한 스냅 사진 작가를 만나게 되면서 사진 기술을 배우게 됐다. 그리고 로마로 옮겨 본격적으로 사진 작가로 활동했고, 그동안 그를 좋게 봐주었던 여행사 회사 대표의 추천으로 방송까지 타게 되면서 로마에서 인기 사진작가가 되었다.

### 다시 무대로... 김해 가야오페라단과 함께

코로나 때문이었다. 아니 코로나 '덕분'이었다고 해야 할까? 사진작가로 한창 주가를 올렸던 시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딱 차 있던 1년치 예약이 순식간에 취소가 됐던 것.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공연 사진을 찍는 일을 하려 했지만 코로나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고 열리지 않았다. 그런 그를 무대로 다시 이끌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에게 맨 처음 성악을 가르쳐 준 스승 성정하 선생이었다. 선생이 이끌고 있는 가야오페라단의 '오페라 춘향전'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무대가 많아지면서 다시 성악가로서 노래할 수 있었다.

“선생님이 항상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저를 믿어주고 아껴주세요.”

소프라노 성정하 선생은 그가 슬럼프에 빠졌던 때나 위기의 순간에도 항상 의지가 됐던 존재이다.

“음악적 스승이시고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길을 걸어온 선배님이기도 하니까 이런저런 고민이나 생각들을 다 풀어놓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 산레모... 나를 검증하기 위한 도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성악가로서 무대를 이어갔던 그, 그런데 왜 '산레모'였을까?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검증해보고 싶어서였다.

“목표하는 건 이 정도인데 실력은 안되는 것 같아서 다른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클래식은 애증의 존재예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불렀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외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알아야 했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사진작가 일을 하면서 Il Volo(일 볼로)의 CD 하나만 계속 들었다. 모든 트랙을 거의 다 외울 정도였는데, 일 볼로의 음반에 이탈리아 옛날 노래, 칸초네를 리메이크한 노래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곡이 산레모를 통해 사랑받은 노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산레모'가 된 거였다고.

### 올해 이탈리아 녹음 앨범 발매

산레모 이후 성악가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테너 박종수. 지난 11월에는 이탈리아에서 특별한 녹음을 하고 왔다. 그렇게 녹음한 곡이 올해에 싱글 앨범으로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테너로서의 음색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곡들을 만들겠다고 제작자가 말씀해주셨어요. 바로크 음악을 편곡해서 나오는 곡도 있을 것이고, 좀 더 현대적인 곡들도 있고... 다양할 것 같아요.”

앨범은 산레모 가요제에서 사용했던 닉네임 'Hunk Tenor(헝크 테너)'로 발매가 된다. Hunk는 '매력적'이라는 영국식 영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기 위해 그가 직접 지은 별명이다. 이탈리아에서 첫 글자 'H'가 묵음이라 '헝크'라고 불린다고 소년처럼 해맑게 웃는 그에게서 노래를 다시 찾은 행복함이 한껏 묻어난다.

“마음은 산레모 이전이나 이후나 늘 같아요. 연습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제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 노래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호신용으로 시작한 주짓수 7년째 꾸준한 관리

언제 어느 순간에 노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악기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테너 박종수. 유학 시절 호신용으로 시작한 주짓수로 7년째 꾸준히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있는 그에게 주짓수는 좋은 컨디션과 목소리를 지키는 그만의 관리법이다.

“항상 가다듬어 놓는 것 같아요. 목은 하나의 통로거든요. 이 통로를 지나가는 추진력은 몸에 있는 근육들이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운동합니다.”

그의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을 보니, 머지않아 세계적인 팝페라 그룹 Il Volo (일 볼로), 팝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Hunk Tenor (헝크 테너)'의 이름이 거론되는 날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다.

### 아버지와의 무대를 꿈꾸며...

개인적으로는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이탈리아 가수 Vittorio Grigolo(비토리오 그리골로)와 듀엣으로 함께 꼭 노래하고 싶다고. 또 언젠가는 앞소리꾼으로 '상여 소리'를 하시는 아버지와의 콜라보 무대도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앞소리꾼은 구슬픈 상여 소리를 선창하며 감동을 안겨주는 역할로 전통 장례문화에 스며 있는 지역의 무형유산이다. 아버지는 양산 상복에서 할아버지 대부터 대대로 상여 소리를 배워 불러왔다.

“아버지가 저보다 더 소리가 좋으세요.”

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성악가 박종수. 아마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끼와 재능이 고스란히 전해진 게 아닐까.

### 김해 가야오페라단 대표, 박종수 “재능·열정 넘치는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테너 박종수가 특별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분주할 것 같은데, 이틀이 멀다 하고 서울에서 경남을 오가며 펼쳐지는 지역 무대에도 부지런히 오르고 있다. 산레모 가요제 이후 태어난 고향인 양산시와 음악적 고향인 김해시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해 가야오페라단 대표이기도 해서다.

2020년 김해 가야오페라단이 올린 공연 '오페라 춘향전'에서 이몽룡 역할을 성공적으로 소화해내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세빌리아 이발사'에서 알마비바 역으로 활약했던 그에게 스승 성정하 선생은 김해 가야오페라단의 대표 자리를 맡겼다.

“유학하고 들어왔지만 혹은 실력은 있지만 형편상 무대에 서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노래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재능 있고 열정 있는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갈 수 있게 당겨주고 자리를 마련하는 게 가야오페라단 대표로서의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정하 선생님이 제게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 Hunk Tenor

서른셋 젊은 나이에 맡은 대표 자리이지만 젊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거라고 담백하게 포부를 밝힌 테너 박종수, 그로 인해 더 활기를 띠게 될 지역의 공연 무대가 기대된다.





설산(雪山)에도  
길은 있어



통영  
배양장



# 새롭게, 배양장스럽게 통영 카페 배양장

수십 년간 멍게를 키우던 수조에 바다를 품은 카페가 자리 잡았다. 통영 카페 배양장이다. 이제는 멍게가 아닌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카페 배양장을 찾았다.

## 옛 모습을 간직한 카페



카페 배양장 안으로 들어서면 은은한 커피 향과 고소한 빵 냄새가 먼저 반기고, 한 쪽으로 탁 트인 넓은 창으로 통영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조도가 낮은 내부 덕에 푸른 바다가 더욱 돋보이는 이곳은 그 이름처럼 20년 전에는 전복을, 9년 전부터는 멍게를 키우던 배양장을 카페로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가업인 수산업을 이어받아 배양장을 운영하던 김재덕 대표는 유휴공간이 된 배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가 평소 관심 있던 카페로의 변화를 결심했다.

“전문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지인과 협업해 하나하나 직접 공간을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기존 배양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벽이나 기둥 등을 보면 원래 있던 흔적이나 골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정만 진행했다고 보면 돼요.”

특히, 옛 배양장의 모습은 루프탑에 오르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옛 수조가 그대로 남아있어, 운이 좋으면 오래된 조개껍질이나 소금 결정 등 카페 배양장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  
배양장스러운  
옛 모습 그대로  
”



##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가는 공간



카페 배양장이 문을 연 지 이제 3년 6개월이 지났다. 김 대표는 앞으로 카페 배양장이 배양장스러운 모습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길 바란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김 대표가 생각하는 ‘배양장스러움’이다.

그 첫걸음으로 카페 배양장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멍게를 배양하던 수조를 활용해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고, 최근까지는 예전 수조를 돌리던 펌프실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정지운 작가의 개인전을 열었다.

“통영이 문화 콘텐츠나 즐길 거리가 적은 도시인데, 카페 배양장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지운 작가 개인전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과 연계해 공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적한 통영 바다마을에 있는 카페가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는 공간이 됐다. 앞으로도 이곳은 가장 배양장스러운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기다릴 것이다.



📍 통영시 산양읍 함박길 51

☎ 0507-1323-6330

🕒 11:00~19:00

매주 화요일 정기 휴무



거제  
아그네스  
파크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 거제 아그네스파크

지역 대표 수산업체 아그네스수산이 이제는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 아그네스파크로 새롭게 태어났다. 1만 2천 평의 넓은 부지에 숙박시설, 전시관, 카페, 야외 공연장, 수영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은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아트컬처팍으로

아름다운 견내량 바닷가를 품은 복합문화공간 거제 아그네스파크가 2022년 5월 문을 열었다. 거제 아그네스파크는 지역 대표 수산업체인 아그네스 수산이 운영하던 참치, 굴 통조림을 만들던 공장에서 시작했다.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허옥희 대표의 구상에 따라, 최정화 미술가, 문형석 건축가, 김봉찬 가든 디자이너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한 아트컬처팍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곳의 오랜 역사와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바람에 따라, 공간 곳곳에서 아그네스수산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천장 구조물은 수산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 모양을 본뒀고, 수영장은 삼각돛을 단 배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한, 아그네스수산의 박희웅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현진제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숙박시설을 종이컵 모양으로 지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시간의 흔적에, 거제도의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 전문가와 예술가의 새로운 감각이 더해져 거제 아그네스파크만의 감성을 빚어냈다.

📍 경남 거제시 둔덕면 거제남서로 5187

☎ 055-636-3777

🕒 매일 10:00~18:00 | agnespark.com | \* 수영장 운영기간 : 6월 초~9월 말

## 한자리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아그네스파크에 도착하면 바다를 배경으로 선 과일 나무 한 그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맑은 바다와 어우러진 과일나무는 최정화 작가의 작품으로, 아그네스파크를 방문한 이들이라면 꼭 담아 가는 풍경이기도 하다.

과일나무와 바다를 등지고 서면 드넓은 정원으로 아그네스파크 건물이 우뚝 서 있다. 아그네스파크는 라이브러리&카페, 수영장, 아트스페이스가 함께 모인 건물 한 동과 숙박시설 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아그네스파크를 지을 때부터 공을 들인 곳은 아트 스페이스로, 기획 전시 공간과 아그네스수산이 후원해온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이 동양화부터 서양화까지 폭넓게 전시된 상설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기획 전시의 경우 국내외 미술관과 협업하고, 전문 큐레이터가 참여해, 방문객에게 질 높은 예술 경험을 선사한다.

전시를 둘러본 뒤에는 라이브러리&카페를 돌아볼 차례. 1층은 아그네스수산과 국내 수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비치된 전시공간이고, 2층은 지역 예술인들의 음악회가 주기적으로 열리는 실내 콘서트홀이 마련돼 있다. 이어 3층 카페에 오르면 통창으로 바다와 정원의 풍경이 반긴다. 창문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은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손색없다. 야외 수영장에는 네덜란드 아티스트 그룹 MVRDV의 조각 작품들이 곳곳에 놓여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되어 풍경에 재미를 더한다. 단, 수영장은 6월 초부터 9월 말까지만 운영된다.

카페에서 나오면 맞은편에 숙박동이 서 있다. 카페, 전시관, 수영장 등 여러 즐길거리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덕에 하루만으로는 부족해 기꺼이 하룻밤을 머물고 가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자연을 바라보며 쉬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음악에서 미술까지 여러 문화 예술을 음미할 수 있는 곳.

모두와 함께, 또 모두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은 거제 아그네스파크다.



“  
오랜시간  
쌓아온 흔적에  
새로운 감각을 더한  
거제 아그네스파크  
”





1

기업과 예술이  
함께 만든 추억,

#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M

경남메세나협회가 주최하고 BNK경남은행과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2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가 지난 9월 16일(금)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는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메세나 활동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내 고장 기업사랑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도내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공연이다. 이 공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관중 비대면 공연으로 대체되었다가 3년 만에 천년고도 문화예술 도시인 진주에서 관객들을 맞이했다.



공연에는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공연장의 문이 굳게 닫혔던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경남메세나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었던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 가족들을 비롯하여 1,500여 명의 도민들이 함께했다. 아울러 협회는 서부 경남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100여 명을 초청하여 나눔을 실천하였다. 최홍영 경남메세나협회장은 “오늘 이 축제의 무대가 코로나19의 종식과 지역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되어 지역의 경제와 문화예술이 나날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참석자들에 대한 환영의 인사를 남겼다.

콘서트는 매년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프로그램 구성으로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 또한 알차게 구성되었다. 이번 공연의 첫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가 화려하게 열었다. 그녀는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초인적인 테크닉과 탁월한 극적 감수성이 집약된 '카르멘 환상곡'을 연주했다. 이 곡은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극복해야 할 난곡 중의 난곡으로 꼽히는데 김다미 바이올리니스트는 완벽한 테크닉과 오페라 특유의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살린 연주로 작품의 수식어를 무색하게 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경남국악예술단 가인과 왕기철 명창은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과 '적벽가' 중 조조가 패망하여 도주하는 장면을 담은 '적벽화전'을 열창하였다. 특히 '적벽화전' 무대는 경남메세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김인호 지휘자의 편곡으로 오케스트라와 국악기가 융합한 연주에 씩씩하고 웅장한 왕기철 명창의 우조가 만나 색다른 맛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콘서트의 열기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가수 백지영의 등장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최정원은 본인이 출연한 뮤지컬의 주요 메들리와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등을 부르며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백지영 역시 '그 여자', '사랑 안 해' 등 자신의 대표곡들을 열창하여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피날레는 경남메세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장식했다. 김인호 지휘자가 이끄는 경남메세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경남도민과 문화적 감동을 공유하고 기업의 지역 문화 사랑 실천을 통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경남을 만들어 나가고자 지난 2014년 창단된 관현악단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장엄한 관악기의 합창과 팀파니의 울림이 돋보이는 모데스트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중 '키예프의 대문'을 연주하며 관객들과 가을밤의 특별한 추억을 완성했다.





2

메세나로 경남을 빛낸  
별들의 축제

# 2022 경남메세나대회

“아름답고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경남메세나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022 경남메세나대회가 지난 12월 6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한 해 동안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며 예술 후원 활동에 참여한 경남의 메세나인들이 모두 모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든든히 예술 지원에 매진해온 기업과 개인 그리고 창의적 예술 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 예술단체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응원이 쏟아졌다.

올해로 15년째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경남메세나협회는 코로나 시국의 영향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기업 36개, 중소기업 163개 등 기업과 예술단체 199개 팀이 결연을 맺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메세나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기에 2022 경남메세나대회의 의미는 더욱 깊었다.

최흥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한 기업인과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상생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아름답고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경남메세나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문화예술과 기업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하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등 문화예술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들에게 도민을 대표하여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으로 사회 공헌을 실천한 4개 기업과 1개 예술단체, 1명의 개인 그리고 2명의 문화예술유망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대에 오른 문화예술유망주들의 공연 그리고 특별 초청된 월드뮤직밴드 제나의 축하공연으로 행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채롭고 풍성하게 치러졌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졌던 머물러 교환 퍼포먼스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하여 생략되었지만 동행하는 기업과 예술단체의 명단을 담은 대형 현수막이 대신 자리해 그 의미를 되새겼다.







Gyeongnam Mecenat Awards

# 대상

## 범한퓨얼셀(주)

회장 정영식



“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일,  
메세나



“

끝없는  
문화예술  
사랑

미래지향적인 기술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수소 연료전지 통합솔루션 기업인 범한퓨얼셀은 문화예술은 지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철학으로 문화예술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민들과 보다 행복하게 소통하고자 경남메세나협회 이사로 인연을 맺고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 장르의 벽을 넘어 골고루 사랑을 나누다

범한퓨얼셀(주)은 2013년 경남관악단과의 결연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단체를 늘려가며 메세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연극, 문학, 지역 문화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의 든든한 후원에 힘입어 결연단체인 그린쇼콰이어합창단은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으며 경남뮤지컬단은 뮤지컬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경남에서 장르를 고수하며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극단 상상창꼬는 국내는 물론 해외 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으며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극단으로 성장 중이다.

### 대지를 넉넉히 적시는 크고 넓은 마음

봄비가 어느 한 곳에만 비를 내리지 않듯 범한의 사랑은 문화예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곳저곳 넉넉히 내려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봄비와 같이 범한퓨얼셀은 소외된 곳곳에 사랑을 나누고 있다. 정영식 회장은 현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발전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범한 배 전국 중학 야구대회를 출범하여 스포츠 영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조우성 대표는 (주)영광산업을 이끄는 경영자인 동시에 경남 문화예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메세나인이다. 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곧 내면을 향기롭게 만드는 일이라 믿으며 향기로운 도민의 삶을 위해 지역 예술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남 도의원으로 재직 당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했다.

### 관악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응원

조우성 대표는 음악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2012년부터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 단장을 맡으며 매칭펀드를 통해 10년간 예술단체를 후원했다.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는 현재까지 60회가 넘는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지역 관악문화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는 로얄플룻 앙상블과도 매칭펀드 결연을 맺고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더라도 혼자 힘만으로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없듯이 문화예술도 함께해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우성 대표는 지역 음악계에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있다.

### 지역문화 발전에 한 획을 긋다

조우성 대표는 제9-10대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그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섰다. 지역 고유 콘텐츠인 대장경천년세계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경남도민예술단 창립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 앞으로도 그는 예술이 세상을 더욱 향기롭고 따뜻하게 만든다고 믿으며 메세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Gyeongnam Mecenat Awards



# 메세나인상

## 조우성

(주)영광산업 경영자





### 문화경영상

원창단조 대표 이현석

### 문화공헌상

(주)세영 대표이사 박영숙

### Arts & Business상

(주)강민 대표이사 강원호 &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악단 음악감독 주원배

### 문화예술 유망주상

이희상 한국예술종합학교 (트럼펫) 박지훈 진주중학교 (타악기)



#### 품질만큼 사람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1977년 설립된 원창단조는 자동차 부품 등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원창단조 이현석 대표는 품질만큼이나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진흥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에 25년 전부터 함안군여성합창단과 인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덕분에 함안군여성합창단은 더 넓은 무대에서 더 좋은 음악으로 지역민들과 행복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원창단조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문화발전을 위해 동행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앞으로도 원창단조는 지역민과 공감하며 지역과 함께 즐거운 동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 좋은 소식을 전하듯, 좋은 음악을 전하다

(주)세영은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자부품 전문기업이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미래지향적 일류기업을 추구하는 한편, 인간생명 존중과 인재중심, 사람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직원과 고객이 행복한 회사,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헌활동 또한 활발히 펼치는 기업이다. 몇 년 전 지역에서 이웃과 음악의 감동을 나누는 굿뉴스합창단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주)세영 박영숙 대표는 선뜻 손을 내밀었다. 합창단의 열정과 헌신에 공감했고,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음악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세영은 합창단의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그들의 예술이 지속 가능하도록 마음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주)세영의 지원에 힘입어 굿뉴스합창단은 좋은 소식을 전하듯 곳곳에 좋은 음악을 전하며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있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과 음악을 나누는 것은 물론 공연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이 모인 곳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고 있다. 굿뉴스합창단과 (주)세영의 어울림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끊이지 않고 들려올 것이라 기대한다.

####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놀이터

2013년 창단한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악단은 80여 명의 청소년 단원으로 구성된 관악 오케스트라다. 관악단은 훌륭한 재능을 가진 지역 청소년들의 음악적 성장뿐만 아니라 합주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기존 클래식을 더욱 유쾌하게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편곡하여 연주하며 학생들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악단의 무대는 늘 에너지가 넘치고 흥겹다.

####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의 가치를 지켜내다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악단의 활동을 든든하게 응원하는 지원군이 있다. 바로 (주)강민이다. (주)강민은 경남 지역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편,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악단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도 이들의 꿈과 예술이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였다. 연주자 전용 마스크, 아크릴 칸막이 등을 구입하여 학생들이 쉽 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의 가치가 지켜지고,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악단과 (주)강민이 '동행'한 덕분이다. 지역의 음악 인재들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하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의 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 후배들의 귀감이 되다

이희상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남해청소년오케스트라에 입단하면서 처음 트럼펫을 만났고 그 매력에 푹 빠졌다. 지역 여건상 음악 학도의 길을 걷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농어촌희망재단이 추진하는 '금난새와 함께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활동과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배려 그리고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꿈을 키웠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연습에 중독된 것처럼 노력했고 그 결과 남해군 최초로 서울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했으며 유수의 콩쿠르를 통해 계속해서 실력을 증명해나가고 있다. 행보 하나하나가 역사로 기록되는 이희상 학생의 모습은 지역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 음악을 대하는 열정적인 태도

박지훈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신안초등학교 관악부에 들어가면서 타악기 연주를 시작했다. 4년 후, 생애 첫 참가한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서 음악 학도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채우고,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끝까지 해결해 내고야 마는 열정과 집념으로 연습에 매진한 덕분에 금호영재콘서트 오디션에 당당히 합격했으며, 다수의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경남 음악의 미래를 밝힐 유망주, 박지훈 학생의 내일을 응원한다.





3

경남 문화예술의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다. 두 기업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경남메세나협회의 협업을 통해 지역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메세나협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아트프렌즈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매년 하반기가 되면 '내 아트프렌즈' 지원 사업을 4년째 추진하고 있다. 올해 LH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지역민들과 예술인들을 배려하여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다. 공모를 통해 LH와 함께 창의적 역량을 공유하며 우정을 쌓아 갈 14명의 아트프렌즈들이 선정되었다. 연극과 음악, 시각예술,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도내 구석구석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며 문화예술의 향기를 퍼트렸다.

- 1. 밀양 연극제
- 2. 아티스트콜라보 엮다. 진주이야기
- 3.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 꿈의오케스트라

경남연극협회는 밀양에서 열린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를 통해 도민들과 소통했다. 22일 동안 펼쳐진 여름날의 연극축제는 관객들을 해맑은 상상 속에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경남 대표로 연극제에 참가한 극단현장의 작품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단체 금상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코리안 드림 신포니에타는 꿈의 오케스트라-창원 연주자들과 함께 마산역에서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콘서트를 개최했다. 전문 연주자들의 지도로 꿈의 오케스트라 소속 아동 연주자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했다는 후문이다. 진주미술협회는 예술의 도시 진주의 과거와 현재, 자아와 타자를 잇는 '관계, 엮다'라는 주제를 재해석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작품을 설치하였다.



경남메세나협회 &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공공예술 창작 프로젝트

'공공예술 창작 프로젝트'는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여름, 지역의 젊고 역량 있는 시각예술분야 아티스트를 발굴하고자 진행된 이 사업에는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공모를 통해 청년 작가 3인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로부터 창작지원금이 전달되었다. 작가들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말(馬)과 사람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작품 창작에 돌입했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회공헌 담당자는 "이번 예술 공모사업을 통해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지역 청년예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참여 작가로 선정된 천경남, 이유라, 하윤서 작가의 작품은 현재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관람대 3층 아트라운지에 설치되어 있다. 이 작품은 렛츠런파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이곳에 한동안 전시되었다가 경마장 인근 복선전철 역사가 완공되면 역사로 작품을 이전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작가 | 천경남  
작품제목 | Water Drop Waltz  
(2022, 125x80x110, 강화플라스틱, 우레탄 코팅)

경마는 일부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왔다. 본 작가는 질주하는 경주마의 말발굽 울림을 모래 해변에서 왈츠 박자에 맞춘 듯 흥겨움에 물놀이하는 경주마에 비추어, 이를 상징적으로 대중에게 하여금 보다 가까이 다가가게 함으로써, 경마를 대중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편견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접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담고자 본 작품을 구상하였다.



작가 | 이유라  
작품제목 | 숲속의 루나  
(2022, 162 x 130, 변형 8점, 장지에 혼합재료)

경기마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 작품은 루나라는 말과 양귀비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루나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버렸다. 루나의 송고한 노력이 보는 이들에게 힘을 준다. 이 작품은 루나의 기적과 노력의 송고함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제는 편안히 숲속에서 안식을 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으며 양귀비 숲의 이미지 속 흑백정원에서 침을 얻길 바란다.



작가 | 하윤서  
작품제목 | 열정의 순간  
(2022, 116.8x90, 순지에 분채 및 은박)

삶에서 우리는 꽃이 피고 지듯 어느 환경에서 특정 희망을 안고 끊임없이 도전을 반복하며 노력한다. 동작을 연결, 반복하며 뛰어가는 말의 흐름 속에서 생동감이 느껴지듯 도전의 반복, 그 속에서 삶의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말이 가진 에너지는 사람들에게 끈기와 도전, 열정, 희망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삶의 동질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유한한 공간 속에서 열정의 순간 그 흐름을 표현하고자 했다.





4

# Good bye 코로나 Hello Art, 찾아가는 음악회

실내악 공연으로 품격있게 한 해를 시작하고 연말에는 임직원이 단체로 연극을 관람하며 잊지 못할 송년의 밤을 보낸다. 사내 예술 동아리의 무대를 함께 즐기고, 오페라 아리아를 감상하며 직원들의 감성을 일깨우기도 한다. 경남메세나협회가 제공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문화 송년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사들의 이야기다.

### 일상의 회복을 꿈꾸며, 센트랄×리즈오페라단



2022년 1월, 구산면에 위치한 어느 한 카페에 (주)센트랄 임직원들이 모두 모였다. <기업사랑, 센트랄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로 한 해의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다. 리즈 오페라단이 함께한 이 음악회에는 코로나19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 기업과 예술 모두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겼다. 리즈오페라단은 통유리 너머 노을 진 바다를 무대 배경 삼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고, 직원들은 음악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임직원들의 마음도 안영하도록,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벨라미치예술단**  
고속도로 위 운전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도 특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어느 가을

오후,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는 '직원 힐링 및 안전을 위한 사내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공연의 포문을 연 것은 사내 기타 동아리 '기타등등'의 연주. 업무시간 외 틈틈이 무대를 준비한 '기타등등' 멤버들은 가을에 어울리는 기타 선율을 동료들에게 선물했다. 동료의 기타 반주에 노래까지 준비한 어느 사원은 이번 공연 이후 사내에서 인기스타로 떠올랐다는 후문이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의 결연 예술단체인 벨라미치예술단도 함께했다. 지역 실력파 성악가들로 구성된 벨라미치예술단 단원들은 독창부터 중창까지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주며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임직원들의 지친 마음에 인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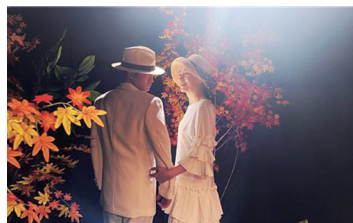
### 수고했어 올해도, 세아창원특수강×경남프리모앙상블

대한민국 No. 1 특수강 전문 제조 회사인 세아창원 특수강이 2022년 연말을 맞아 정년퇴직자들을 위한 뜻깊은 음악회를 준비해 직원 복지도 No. 1임을 증명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매년 오랜 시간 회사에 헌신하며 후배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준 정년퇴직자들에게 예우를 표하는 퇴임식을 진행하고 있다. 40여 명에 달하는 퇴직자들의 가족들과 후배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남성중창단 경남프리모앙상블이 축하공연 선물을 전했다. 앙상블은 이탈리아의 민요 Funiculi-Funicula, 가요 라라라를 열창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앙코르 곡으로 아빠의 청춘 메들리가 나오자 강당에 모인 가족들과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그렇게, 음악과 함께, 세아창원특수강 가족들은 음악으로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전했다.



### 남다른 회식, 신화철강×극단나비

바쁜 연말, 모두가 회식 장소를 섭외하느라 고생하던 시기, 신화철강(주)은 남들과는 다른 회식 장소를 선정했다. 다음 아린 창원시 용지동에 자리한 나비아트홀. 신화철강 임직원들은 나비아트홀에서 진행된 극단 나비의 연극, <내가 가장 예뻐할 때>를 단체 관람하며 문화 회식을 진행했다. 극단나비와 신화철강은 경남메세나협회의 매칭펀드 사업을 매개로 벌써 9년째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 이날 회식은 더욱 의미가 깊었다. 코로나19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느라 지쳐있던 극단 나비에 날개를 달아주었던 신화철강의 지원과 임직원들의 성원에 극단 단원들은 열정적인 연기로 보답했다. 그래서 차가운 바깥공기와 달리 소극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하고 아름다웠다.



경남메세나협회는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문의 | 055-285-5613

5

# 경남메세나협회, 전국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최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지난 12월 30일, 경남메세나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부문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기여한 협회의 공로를 인정하여 2022년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부문에 경남메세나협회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협회는 2014년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제1호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서는 해당 부문 최초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협회는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등을 통해 누적 결연팀 1,700개팀, 누적 지원금 300억 원을 달성하였다. 이 밖에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

예술 콘텐츠 보전을 위한 '지역문화특화사업',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강화를 위한 '문화나눔사업' 등의 후원 매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추진하여 지역 경제와 예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홍영 경남메세나협회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노력이 좋은 성과로 돌아와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저변확대는 문화예술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민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맑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

# 기업 메세나 전국 확산을 위한 전국 메세나단체 공동 세미나

: 기업 메세나의 확장적 역할을 위한 정책 방안과 ESG시대의 문화예술 활용법



지난 10월 26일(수)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기업 메세나 전국 확산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 세종시메세나협회, 부산메세나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와 김효근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황애경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이사, 임주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장, 고가연 제주메세나협회 부장,

손수나 경남메세나협회 과장이 참석하여 기조강연과 발표, 지정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기업 메세나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 지역문화 활성화의 주축으로 기업이 나설 때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병민 교수는 팬데믹이 변화시킨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달라진 면면을 짚어가며 지역과 연계한 기업 메세나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화콘텐츠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개되는 가운데, 메세나 역시 장소와 영역,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확장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생태계 구성과 메세나 전국망 구축을 통한 탄탄한 거버넌스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Mecenat 3.0, 마스터피스 메세나

기조강연에 이어 김효근 교수는 'ESG+메세나'를 주제로 메세나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활용한 ESG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제품과 서비스로 소비자를 기업의 팬으로 만들고 ESG를 통해 소비자를 감동시키면서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마스터피스 메세나'를 제안하였다. 문화예술 후원을 경영에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Mecenat 2.0' 시대를 넘어 기업과 예술이 감동적 관계를 맺으며 기업은 경영을 '예술'하게 되는 'Mecenat 3.0'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 메세나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고민

고가연 제주메세나협회 부장은 우수 사례로서 제주 향토기업 한라산과 롯데관광개발의 메세나 활동을 소개했다. 두 기업은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들을 깎집어내고 이를 더 매력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끝으로 임주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장, 황애경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이사, 손수나 경남메세나협회 과장이 지정토론의 패널로 참여하여 메세나 기구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하였다. 삶의 방식과 트렌드가 급변하는 지금, 공공과 민간, 기업과 예술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우며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켜가는 메세나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충남문화재단은 지난 9월 30일 충청남도와 함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문화예술계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업과 문화예술계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기업인, 도·시·군 공무원, 문화예술단체, 문화기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자로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부회장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문화예술계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세션1에서는 한상범 GS칼텍스재단 예술마루 기획홍보팀장이 기업의 메세나 활동 사례를 발표하였고, 세션 2에서는 부산메세나협회 이선정 팀장과 경남메세나협회 손수나 과장이 지역 메세나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순서에는 박철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도로 지역에서의 기업메세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충청남도는 '충남 2030 문화비전'을 기반으로 도내 메세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충남 메세나 활성화 포럼 개최



# 2023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2023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도와 경남메세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예술단체에 추가로 펀드지원금을 교부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이다.

###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3년 2월 1일(수) ~ 24일(금) 18:00까지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제2조의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비롯한 각종 비영리법인과 국·공립 대학교 기업 및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친목단체 성격의 조직 제외) 공공기업의 지역본부 및 지사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 등

#### 예술단체 |

경남도내 소재하는 단체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 예술법인 및 단체, 임의단체,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 및 문화예술 시설 등

### 결연형태

- 1:1 결연 | 1개의 기업이 1개의 예술단체 지원
- 1:多 결연 | 1개의 기업이 다수의 예술단체 지원
- 多:1 결연 | 다수의 기업이 1개의 예술단체 지원

### 제출서류

- 기업 | <매칭펀드 지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예술단체 | <매칭펀드 지원신청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지원계획서 및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심사기준

- 기업 |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역량, 지속적 지원 가능 여부 등
- 예술단체 | 사업 추진 계획, 교류협력 활동 계획, 과거 활동실적 등

### 지원금액

기업지원금과 펀드지원금의 1:1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펀드지원금의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접수

우편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층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이메일 : gnmecenat@gnmecenat.or.kr

### 문의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055-285-5611~3



# 뒤러의 우울 예찬

강미선

교육학박사/  
보다예술교육연구소 대표



1



“천재들은 모두 우울질이다.” 기원전 350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포함한 정치와 철학 그리고 시 영역에서 명성을 날렸던 인간들은 모두 멜랑콜리아에 빚대어 말했다.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멜랑콜리아는 고대 그리스어 검은색 멜랑(melan)과 담즙을 뜻하는 콜레(chole)에서 유래되었다. 흑담즙을 상징하는 이 말은 우울을 의미한다.

우울해지거나 비가 와서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면 우리는 ‘멜랑콜리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4대 기질 중 우울질은 지구의 바닥을 구성하는 형질인 흙에 비유된다.

지금은 우울한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만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오히려 창의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울질은 플라톤의 광기론과 관계를 맺을 때 관념의 연대가 성립된다는 공식을 내놓았다. 즉 예술은 우울질을 동반하며, 천재는 창작 과정에서 작품에 우울질을 담을 수밖에 없고 우울로 인한 정신적 괴로움을 표출한 극단적 행위가 예술적 광기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광기는 병에 의해 일어나는 보편의 광기와 확연하게 구별된다.

예술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았던 미켈란젤로도 평생을 우울과 자기 부정 속에서 지내야 했으며, 자신의 창작행위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을 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우울이라는 말은 병리적인 말로 인식된다. 우울은 정서적인 증상뿐 아니라 슬픔이나 죄책감, 죽음이나 자살 그리고 허무감 등 정신의 병적 증상을 보일 수 있고, 그것은 사회 제도, 구조 등 안정성을 약화한다. 이러한 우울은 소중한 것의 상실에 대한 정상 반응이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하면 장애로 간주할 수 있기에 현대사회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감정의 유형이기도 하다. 한 예로 코로나 이후 우울해진 30, 40대 남성들의 정신 건강이 위험 수준을 웃돌고 있다는 보도(한국일보, 2022. 12. 27.)는 질병관리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선택의 가능성이 많다. 대신에 어떤 일에 대한 실패의 경험도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그 일에 가치관과 자존감이 스며있는 일이라면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좌절이라는 감정의 폭은 깊어진다. 좌절이 거듭되면 인간의 표정과 태도는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전에 이러한 우울의 기질들이 스멜스멜 내면에서 은밀하게 올라온다.

아슬아슬한 우울의 본질은 풍부한 감수성과 예민함으로 역사에 남을 위대한 학문과 예술을 성취했고, 세상의 변화를 끌어내었다. 우울의 특성을 잘 정리한 소수의 학자는 존재의 부족한 부분을 예술로써 해법을 제공한 인물들이 우울질이 많다고 하여 ‘우울질 예찬론’을 세상에 내놓았다.

북유럽의 레오나르도라는 애칭으로 불린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urer, 1471-1528)는 그의 우울질 예찬 사상을 작품 《멜랑콜리아I》에 담았다. 인간의 체질과 성격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형질 즉 기질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예술가

1. 알브레히트 뒤러, 《멜랑콜리아I》, 1514. 동판화, 24.2×19.1cm, 메트로폴리탄미술관. 2. 에드바르트 뭉크, 《생글루의 밤》, 1890.



들이나 학문을 이룬 지식인들의 초상을 다루었다. 의학과 미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사람 몸에 있는 특정 액체 성분의 많고 적음으로 체질 즉 기질로서 풀어낸 사설론은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그리고 점액질로 구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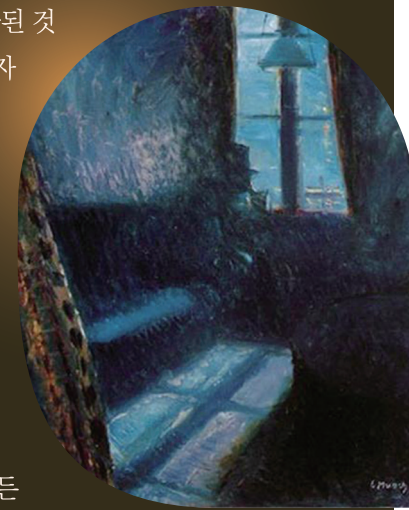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 의학자이며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체질에 따라 치료법을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질을 4가지 성질로 정의한 것이다. 그중에서 세세한 면까지 신경을 쓰는 완벽주의자로서의 높은 기준을 가진 우울질의 지식인은 이상을 추구하기에 좌절감에 빠지면 극도로 자기연민에서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울질인 사람을 광인으로 묘사된 것과 달리 뒤러의 《멜랑콜리아I》에서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듯한 중성적인 이미지의 사람이 턱을 괴고 고민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두 눈의 예민한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천재들의 생존 논리는 ‘창조’이다. 그래서 온갖 잡다한 도구에 둘러싸인 천사의 형상을 한 인물은 세계의 질서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예술가이거나 지식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난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에 의해 창조된 오묘한 질서와 법칙에 대해서 더는 알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여 깊은 우울감에 빠진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북유럽 특유의 감성과 이탈리아 미술의 형식미가 절묘하게 스며있는 이 작품은 턱을 괴고 사색에 잠겨있는 모호한 천사의 모습과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는 푸토가 인상적이다. 이들 주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측량 도구와 정다면체는 안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서리가 잘려있다. 공구들도 바닥에 감정만큼이나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애수에 잠겨있는 창조자의 모습은 진지하다.

뒤로 화면의 전면 벽에는 목성을 나타내는 4방진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목성의 기운은 그림 속 주인공의 정신을 맑게 해 주는 역할을 상징한다. 그 옆에는 박쥐 형상을 한 날개 위로 ‘멜랑콜리아I’ 문구가 새겨져 있다.

제목에 포함된 로마숫자 I은 연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과 관련된 변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래서 현대의 도상 해석학자들은 뒤러의 이 작품이 우울로 촉발되는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력, 이성, 지성을 꼽았던 당시 인문학 저술을 시각화 한 것이라 추론하기도 하였다. 《멜랑콜리아I》는 우울과 창조적 영감 사이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하나의 창작물을 완성하기 위해



2

위대한 예술가들은 세상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예술작품은 세상을 더 진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재현의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안내해준다. 뒤러는 작품에 재현된 형상들을 이러한 인문주의적 주제로 작업을 했고 그 결과로 독일미술의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추앙받았다.

위대한 화가 중에 불안의 아이콘이었던 우울하고 사색적인 아웃사이더였던 뭉크(Edvard Munch, 1863~1944), 인물들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 텅 빈 눈동자의 공허함을 표현한 모딜리아니(Amedeo Clemente Modigliani, 1884~1920)는 삶의 의미를 예술적 창의력에서 해결하려 하였다.

결국 뭉크는 무의식에 억압된 아픈 기억을 미술 작업을 통해 치유하고 통찰하여 81세의 나이까지 삶을 영위하였지만, 보헤미안이었던 모딜리아니는 예술적 초조감과 우울을 술과 마약으로 살다 끝내 결핵으로 34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우울 기질을 가진 사람은 타인으로서의 지적이나 비난으로부터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주변 환경을 바꾸거나 개인적인 의지로 감정의 완화는 가능하다.

4대 기질론에 관심이 많아 얼마 전에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테스트를 하였다. 애니어그램, MBTI 등 여러 성격 유형 검사를 하였지만, 기질 테스트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기질은 타고난 것이지만 장점은 살리

고 단점은 개선하여 변화시키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기질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질의 장점을 살려 인격을 다듬어 나갈 것인가? 기질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안다면 개발하여 만들어 갈 수 있다.



3

3.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큰 모자를 쓴 잔느 에뷔테른느》, 1918~1919. 캔버스에 유채, 54×37.5cm.



2023 Great Season

# 경남문화예술회관 2023 상반기 기획공연

패키지 티켓 최대 40% 할인



윈튼  
마살리스  
재즈 콘서트

3. 21.(화)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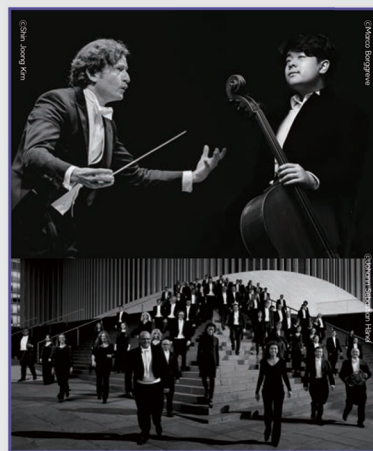
황수미  
리사이틀

4. 20.(목)  
19:30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

5. 4.(목) 19:30  
5. 5.(금) 19:30  
5. 6.(토) 15:00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with 한재민

5. 26.(금)  
19:30

패키지 티켓오픈 1. 18.(수) 11:00

티켓오픈 1. 20.(금) 11:00

문의 1544-6711

\* 상기 모든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합니다. 관람 등급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일 공연 입장이 금지되오니 꼭 확인하시고,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23

TIMF

## BEYOND BORDERS

UNSUK CHIN, ARTISTIC DIRECTOR

LEONIDAS KAVAKOS, ARTIST IN RESIDENCE  
SUNWOOK KIM, ARTIST IN RESIDENCE  
ONDŘEJ ADÁMEK, COMPOSER IN RESIDENCE

March 31 ~ April 9, 2023

[www.timf.org](http://www.timf.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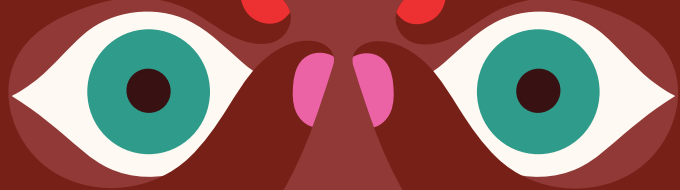
LIFE IS COLOR

색의 마술사

온가족이 함께하는

# 올림피아 자그놀리

그림전시



성산아트홀

2023. 01. 10. - 03. 12.

주최 창원문화재단 | 주관 창원문화재단 | 후원 DCOM | E&I | 협력 UNQP | dArtworks

동성모터스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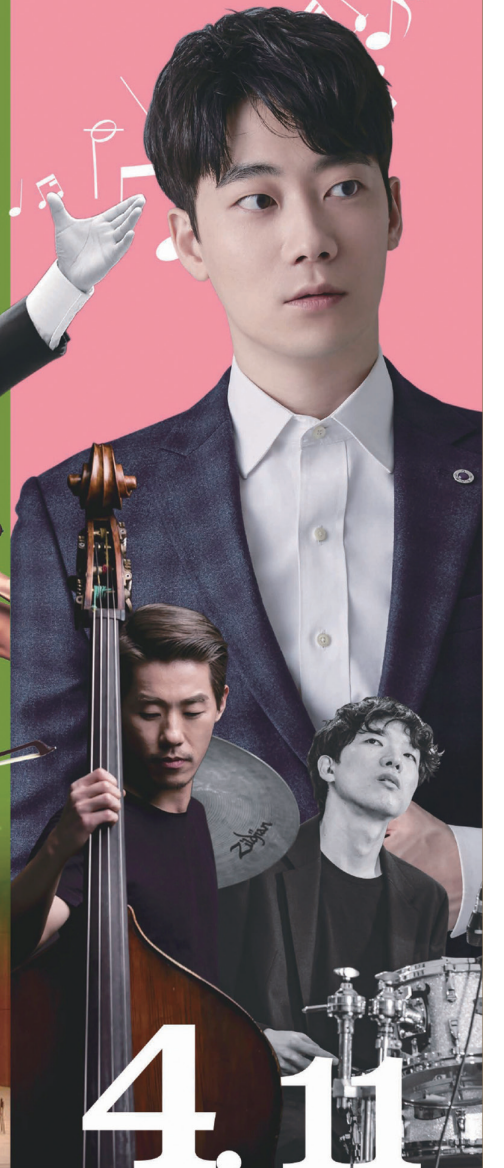
2023 화요모닝콘서트 plus changwon



2.14



3.14



4.11

## 2023 Morning Concert

봄이 오는 소리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트  
With 이지훈

3월 14일

화이트 데이 콘서트  
아르끼 챔버오케스트라

4월 11일

윤한과 함께하는  
봄의 왈츠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전 11시 | 성산아트홀 소극장

| 주최 창원문화재단 | 후원 동성모터스 | 공연료 | 20,000원 | 문의 | 055-268-7900



# Gyeongnam Mecenat Members

## 경남메세나 회원사

### 회장사

BNK경남은행

### 부회장사

남명산업개발(주)  
NH농협 경남본부  
(주)무학  
(주)센트랄  
우수AMS(주)  
(주)인신가  
경남메세나협회  
(주)한국아나세  
(주)화인테크놀리지

### 이사사

경남도문화관광체육국  
경남오페라단  
경원벤티크(주)  
고성오광대보존회  
창원대학교 음악과  
창원상공회의소  
(주)리베라관광개발  
범한산업(주)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신화철강(주)  
원광건설(주)  
(주)정일  
(주)지엔티  
청호환경산업(주)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화성G&I(주)

가야BS(주)  
가야오페라단  
(주)거명인텍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경남개발공사  
경남스틸(주)  
경남신문사  
경남자동차판매(주)  
경원여객자동차(주)  
(주)경한코리아  
(주)고구려  
고려이노테크  
(주)고려철강  
고운가이드치과병원  
고운선치과의원  
고운치과병원  
광득건설(주)  
광신기계공업(주)  
(주)구구  
(주)국제전기  
(주)국토보상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창원  
그린산업(주)  
그림갤러리(주)  
(주)금강종합건설  
(주)금솔개발  
(사)경남기독교문화원  
(주)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유)김해공영  
김해상공회의소  
낙우산업(주)  
(주)남광디씨텍  
남양매직(주)  
늘푸른 요양병원  
(주)다우링에너지  
당당한방병원  
(주)대경  
대경건설(주)  
(주)대길티에프  
대방스페셜스틸(주)  
대선주조(주)  
(주)대승엔지니어링  
대신금속(주)  
(주)대종이엔에프  
대주회계법인 경남지사  
(주)대호테크

the큰병원  
(주)덕광중공업  
(주)도원리사이클링  
(주)동구기업  
(주)동오프랜지  
(주)동은화학  
두남화학  
(주)두산중장비센터  
디씨엠(주)  
디케이락(주)  
라온산업개발(주)  
마산정안과  
(주)마창대교  
명제한의원  
몽고식품(주)  
무림페이퍼(주)  
문운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주)  
미즈맘 여성병원  
법무법인미래로  
(주)보덕건설  
(재)봉림장학회  
(주)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주)  
부성자동차학원  
(주)부평디엔피  
(주)복성산업  
(주)사릭  
사보이호텔  
(주)산호수출포장  
(주)삼보산업  
삼우금속공업(주)  
삼원동관(주)  
(주)삼전건설  
삼정기업  
(주)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상화도장개발(유)  
(주)서영시스템  
선린자모의원  
(주)성우  
(주)성환금속  
(주)세복  
세아창원특수강

(주)세양정공  
(주)세호테크  
승진기계(주)  
시영건설(주)  
신광에이스전기(주)  
신요푸드시스템(주)  
신창기계  
(주)신한물산  
(주)세노텍  
아나파약국  
아진기계  
(주)에드테크  
(주)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브이  
(주)에이스코트  
에코시스템(주)  
(주)엔지피  
영광산업(주)  
(주)영남엘피씨  
(주)영신화공  
(주)영일정공  
(주)영진테크  
(주)영창기업  
(주)예술상점  
예인여성병원  
(주)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주)옥산아이엠티  
원광산업석재  
(주)웰템  
유림건설(주)  
윤한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녕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레개발(주)  
(주)이앤티  
(주)이우  
이피씨  
인산죽염(주)  
인화정공(주)  
(주)잇편  
(주)장생도라지  
(주)장성E.P.S  
(주)정문애드테크  
제일레스텍  
(주)줄은콘서트  
중앙건설(주)

(주)중앙금속  
(주)지에스비  
진해성모병원  
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청야의료재단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익수의원  
췌고쿠상화페인트(주)  
캠코 경남지역본부  
케이조선  
(주)코앞건설(참신한건설)  
(주)코텍  
쿠쿠홈시스(주)  
태광실업(주)  
태민산업(주)  
태영엔지니어링  
테라사이언스(주)  
(주)포스텍  
푸주옥  
피케이밸브(주)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남부발전하동빛드림본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니전자(주)  
한국정기공업(주)  
한국제강(주)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지사  
한국태양유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한반도  
(주)한창테크  
(주)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해성메탈(주)  
현대공영(주)  
(주)현대기업  
(주)혜동  
(주)호텔인터내셔널  
흥기종합건설(주)  
(주)화영  
화영철강(주)  
화이트치과  
현대로템  
흥일기업(주)  
STX엔진(주)

가입대상	연회비	가입절차
기업	200만원 이상	입회신청서 제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a href="http://gnmecenat.or.kr">gnmecenat.or.kr</a>
개인,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100만원 이상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에서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_기업과 예술단체의 1:1 결연을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예술단체 워크숍\_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예술인의 기획 및 단체 운영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 회원사 지원 사업 Membership Service

찾아가는 공연\_기업 임직원과 고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직접 기획하여 제공합니다.  
문화공간\_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회원사에 우수문화행사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문화경영도서\_문화예술을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문화경영도서를 선정하여 회원사에 전달합니다.  
예술 동아리 지원\_사내 문화예술 동아리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고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지정기탁\_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달하고 기업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회원사 메세나 활동 홍보\_회원사와의 협력사업을 메세나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합니다.

###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_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움 나눔티켓\_도내 어린이과 청소년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_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_회원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_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지원하여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_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와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_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_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_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 문화예술 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_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KOSDAQ 상장회사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메세나 기업」

# 기업과 예술의 만남

아름답고 행복한 동반자입니다.

**Gns** 경남스틸  
www.gsteel.co.kr

장생도라지



자연이 준 고귀한 선물 -

# 장생도라지

장생도라지는 이성호씨가 개발한 다년생도라지 재배법에 의해 지리산 자락에서 엄격한 관리하에 생산되는 토종도라지입니다.

- 장생도라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기관지 질환의 억제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0643878)
- 장생도라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담배로 인한 폐암 억제 및 치료용 조성물(0640145)
- 장생도라지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균성 및 염증성질환 치료용 한방제제(0314999)
- 장생도라지 추출물을 포함하는 고지혈증 치료용 한방제제(0315000)
- 장생도라지 추출물을 포함하는 당뇨병 치료용 한방제제(0315001)
- 장생도라지 추출물을 포함하는 암 치료용 한방제제(0315002) 등 국내 및 국제(PCT) 특허36건

### (주)장생도라지

- INNO-BIZ 바이오벤처기업
- ISO22000 국제식품안전규격 인증 기업

### 장생도라지 개발자 「신지식인 이성호」

- 석탑산업훈장(2000. 11) - 제12회 일가상(농업부문) 수상
- 진주 시민상 수상 (2014.10)



개발자, 신지식인  
이성호



www.doraji.co.kr / 055-771-1000



# 내 아이를 “서울대학교” 보내고 싶다면

## 휴대폰으로 아이의 사진을 찍어주세요

촬영한 정면, 측면 사진(총 2장)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서울대 학사모를 쓴 피규어를 제작해 드립니다

유토로가 궁금하시다면 QR코드를 찰라~



### 사진촬영 및 피규어 주문접수

주문접수가 완료되면 입금 후 디자인이 진행되며 서울대 학사모를 쓴 피규어를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 총 2장(필수) 촬영



**정면 1장(증명사진 구도)**  
양쪽귀 보이게  
눈은 정면응시  
코를 중심으로  
너무 밝고 어둡거나  
역광, 그림자 지지 않게  
입은 살짝웃기



**측면 1장(완전측면)**  
정면과 같은표정  
정면응시  
반측면(X)

E-mail  
utoro@utoro.co.kr

카카오톡  
더보기에서 “유토로” 검색



QR코드를 찍으면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휴대폰 문자전송  
010-3591-1467  
전화문의  
070-4726-7089



증명사진 구도로 정확하게 촬영된 사진  
일수록 싱크로율이 높은 제작이 가능합니다!  
(※ 상황에 따라 재촬영이 요구되거나  
제작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1 사진 촬영하기

필수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2 사진전송

E-mail, 카카오톡, 휴대폰화 등에서  
선택하여 사진을 전송해 주세요

#### 3 주문접수 완료

주문서 작성 및 사진협의 후  
사진을 바탕으로 피규어를 제작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피규어로 제작하여 눈으로 끊임없이 되뇌고 반복하며 진심을 다해서 희망하다 보면, 믿음, 기대, 예측이 실제로 일어나는 피그말리온 효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 “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방법 ”

#### 피그말리온 피규어

우리도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피규어로 조각하여  
진심을 다해 희망한다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자녀 서울대  
합격기원 피규어



출세(대통령)  
피규어

### “ 영원히 죽지 않는 나 (동상) ”

#### 동상 유토로

이순신, 세종대왕, 장영실.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었던 동상  
그러나 유토로는 태어난 모든 사람이 동상을 남길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 행복한 경남을 바라는 경남은행의 마음

당신이 웃으면 경남도 웃습니다  
경남의 행복 중심에 언제나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하시면



MECENAT  
with you



-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및 문화경영 지원



- 도내 우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초청



- 경남메세나지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입니다.  
문화예술후원금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Tel 055) 285-5611 Fax 055) 286-5610